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1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최근 장묘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가 납골당안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사일여를 바탕한 불교정신이 장묘제도에 확대되고있는 시점에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죽음에 대한 교훈을 새겨본다. 〈편집자 주〉

죽음

사람은 한 번 죽지않으면 안 된다. 빛은 한 번 어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주의 가르침이다. 일체 세계에 태어난 것은 모두 사(死)에 돌아간다. 〈열반경〉

목숨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만난 사람은 헤어지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수행하는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고 삼매를 닦지 않으며,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해탈을 이르지 못하면 윤회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증일아함경〉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나니, 사생으로 태어난 모든 목숨은 마침내 죽음으로 돌아가노라. 번뇌망상을 벗고 아라한이 되었다 해도 최후의 이몸은 벗어야 할 것이요, 해탈을 얻어 부처가 되어 네가지 두려움이 없고, 열 가지 부사의한 힘을 얻어 사자후를 하더라도 무상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로다. 〈별역잡아함경〉

교만하지 않는 것은 행복의 길이며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교만 없으면 죽음도 없으니 교만은 곧 수행자의 죽음이니라. 〈중일아함경〉

무릇 죽음이란 형상이 무너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환난으로 여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보배로 여겨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싫어함이 없구나. 〈불설보요경〉

허공에 숨어도, 바다 속에 숨어도 산중의 굴 속에 숨어도 이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법구경〉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하고, 브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케 되며, 사랑하는 이에겐 이별이 있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으리. 〈제법집요경〉

계율은 죽지 않는 길이라 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니 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며, 도를 잃으면 스스로 죽는다. 〈출요경〉

온갖 목숨 죽음이란 것에 먹혀버림이, 마치 금시조가 모든 용 먹어버림과 같으니라. 또한 코끼리가 사자에게 먹힌과 같으며, 미갈어가 온갖 것을 삼켜버림과 같고, 또한 세차게 부는 바람에 우거진 숲들이 타버림과 같으니라. 〈방광대장엄경〉

관련기사 3면

북한산 중흥사 복원

태고 보우스님 중창 136칸 대가람 '원형대로'

한국불교중흥회 9일 개토식 초종교 수련원 · 경로선원등 건립

한국불교의 중흥조인 태고보우스님의 자취가 깊게 배인 북한산 중흥사가 한국불교 성지로 새롭게 태어난다.

한국불교중흥회(회장 허봉경)는 지난 9일 북한산 중흥사지에서 서암(중흥사조실 · 전 조계종 종정) 청암(중흥회이사장 · 태고사주지) 도각(전 조계종 종회사무처장) 법현(태고종 총무부장)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흥사 복원을 위한 발굴개토식을 가졌다.

이날 개토식에서 중흥회회장 허봉경씨는 "중흥사 건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사지의 정비 및 학술적발굴을 위한 발굴개토작업을 실시했다"며 "오는 6월부터 1천4백여평의 중흥사지에 1715년 당시 1백36칸의 대가람이었던 중흥사가 원형대로 복원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려 태조왕건이 국가중흥발전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며 창건한 중흥사는 태고스님이 중창하여 고려말 5교의 교종과 9산의 선문을 포괄통합한 원융부를 설치하고 전국불교 총령으로 주석했던 사찰이다. 임란시 전국승군의 총본부로서 주지 성능스님이 승대장과 팔도도총섭을 겸임했었다.

중흥회는 이같은 중흥사를 한국불교의 성지로 만든다는 계획하에 소속종단을 두지않기로 하고 종교단체 '중흥회'로 서울시 종로구청에 등록했다.

중흥사는 무의탁 노인을 위한 경노선원과 염불당을 설립하여 충효와 경노사상을 높이고 장애인 · 비행청소년을 계도하는 청소년교화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부대중과 종교, 종파를 초월한 일반인및 세계각국 종도들을 위한 수련원을 설립 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약 30미터거리) 태고사에 태고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남아있어 복원과 함께 한국불교의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중흥사는 20여평의 가건물이 완공되는 이달말부터 전 조계종 종정과 봉암사 조실을 역임한 서암스님이 주석한다.

중흥회 이사장 청암스님은 "중흥사를 완전히 복원함은 국가중흥사업이며 민족복지사업이다"며 "누구든지 찾아와서 마음을 수양하고 삼독에서 해탈케하는 도량을 만드는데 있다"고 복원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중흥사 복원불사는 태고사주지 청암스님과 중흥회 허봉경 회장이 5년전 경기도 기념물 136호 중흥사지를 타종교인과 김대원씨(전 대원전기 대표)에게 매입하여 재건의 발판을 다졌다. 91년 태고스님 다례식에 참가한 서암스님이 중흥사 복원의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난 2월 28일 복원을 위한 허가를 취득했다. 〈김원우 기자〉

불자 국회의원 83명 탄생

4 · 11총선 본사 집계 김윤환 · 김태호씨등 당선


◇김영윤


◇권익현


◇김용갑


◇김태호


◇서석재


◇김석원


◇추미애

지난 11일 실시한 15대 총선에서 불자의원 83명이 탄생했다. 〈본사 집계〉

15대 불자의원은 신한국당 60명 자민련 11명 국민회의 8명 민주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지난 14대 63명에서 20명이 늘어 전체의원 가운데 28%를 차지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10명 인천경기 19명 대전충청 5명 강원 4명 광주전라 4명 대구경북 13명 부산경남 25명 제주 1명으로 나타났다.

불자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 추미애 노승우 김영구 강성재 박범진 서청원 이상현 최병열 홍준표 맹형규 부산 정의화 홍인길 정재문 김정수 박관용 강경식 한이헌 김운환 김기재 서석재 박종웅 김진재 최형우 신상우 대구 박준규 김복동 강재섭 박철언 박구일 김석원 인천 이강희 이윤성 이재명 광주 임복진 대전 이양희 이인구 경기 김인영 남광우 이윤수 조성준 오세응 홍문종 권수창 김문수 최선영 목요상 이택석 안상수 전용원 이재함 황규선 이응희 강원 함종한 박우범 이응선 김기수 충북 구천서 충남 변웅전 이긍규 전북 조찬형 전남 박찬주 배종무 경북 이상득 임진출 김윤환 박헌기 장영철 김찬우 김광원 경남 김종하 황낙주 김태호 하순봉 허대범 황성균 김영일 김용갑 윤한도 나오연 권익현 제주 양정규 전국구 김명윤 박상규

'사찰등급조정' 논의

조계종 본사주지 회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지난 9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19개본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사찰등급조정, 중앙신도회 등 종단현안문제를 보고 받고 성보전시관 공사시공을 해당사찰이 발주토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중 · 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은 중 · 고교 학생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을 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교재로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을 전국 중 · 고교에 보급합니다.

동참해주신 분


◇운덕스님


◇혜우스님


◇태용스님


◇송석구총장


◇도법스님


◇현소스님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15구좌) △태용 불교TV 사장: (5구좌) △혜우 법륜종총무원장: (3구좌) △도법 선우도량 공동대표: (1구좌) △현소스님(은해사): (2구좌) △송석구 동국대총장: 대전중 · 중동고 · 덕성여고 · 용산고 · 포항여고(5구좌) △염준근 동국대총무처장: (1구좌) △이호신(화가): (1구좌) △박호진: (1구좌) △최영락: (1구좌) (4월 11일 현재 · 총 99구좌)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급방법: 직접 방문 기증 · 화물수송 · 수용학교 직접 수령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머데뷔하다 ~제2-1-350-4
4 · 20 장애인의 날 특집 2 · 11 · 14면
절에서 꽃피는 효심 15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불교와 과학' 12면
봉축문화행사 다채 '국민축제'로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미래에 도전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효성중공업
發進, 21世紀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성중공업 —
변혁과 혁신으로 새로운 효성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중전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장품, 계전품, 몰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하역장치, 삭도설비

FA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 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 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HYOSUNG INDUSTRIES CO., LTD.

사 설

'신체장애'와 '마음장애'

어릴적 고향 마을에 친하게 지내던 할아버지가 계셨다. 어른들이 모두 설교와 금제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있을 때 마냥 친구처럼 놀아주던 분이셨다. 노인성 치매인지, 혹은 유전적 박약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천진의 어린이였던 우리에게 그같은 어른들의 '명명'이야 아무래도 좋았을 것이었다. 한 아이가 배가 이프다고 인상을 찌푸리면 아무일도 아니라는 듯, "밥을 먹으면 나아!"하셨다. 그것이 그토록 깊은 철학적 언명인지는 철이 든 후에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와 함께 그 분도 행복하셨던 듯하다. 비록 돌보는 자식들이야 없었지만 마음이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자생적 생존능력을 잃은 한 노인을 그 품에 안고 키우고 있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싱거운 농을 건네기도 하고, 짓궂은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괴춤을 들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자신들의 공간밖으로 밀쳐내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뉴스는 수서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벌이는 소동을 비쳐 주었다.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다고 하자, 남보기 흉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명분이야 언제나 그럴 듯하다. 그 뉴스는 내 아련한 시절의 기억과 겹쳐 우리 사회의 섬뜩한 일면을 실감나게 일깨워 주었다.

주민들의 이기주의를 탓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그 서글픈 연출의 뿌리는 아주 깊다. 내 어린 시절의 고향사람들과 피켓을 든 수서의 주민들,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되, 사회적 연관의 기저를 이루는 코드가 달라졌다. 근대 산업사회는 경쟁과 효율의 원리 위에 서 있다.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된다. 전투력을 잃은 군인이 쓸모가 없듯, 생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력은 인격적 존엄을 부여받지 못한다. 신화, 전설, 인정, 여우, 놀이, 나아가 종교같은 이름은 생산과 경쟁의 적나라한 지배 앞에서 여지없이 휩쓸려가 버렸다. 불교는 원래 거지들의 종교 아닌가. 유럽의 수도원 조직도 구걸로 명맥을 이어나갔다. 신흥산업사회는 그러나 사람들을 공장으로 몰면서 '부랑자에 관한 법률(Vagrancy Law)'부터 통과시켰다. 놀고 먹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을 강박하기 시작했다. 하여 한국의 불교도 고심끝에 탁발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산업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자발적 안정과 보호를 베풀지 않는 체계이다. 몰인정한 현실을 바꾸자면 기저의 코드를 바꾸어야 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효율에서 균형으로, 합리에서 인정(人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이같은 지향을 공유하게 될 때 장애인의 문제는 궁극적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론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차갑고 배타적인 시선부터 거두어야 한다. 뉘라서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정상인가. 과연 누가 건강하고 누가 장애인가. 현대사회에서 유능을 인정받는 내가 실은 가장 비정상적인 인격이 아닌지 사무치게 돌아보아야 한다. 장애인들 또한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의식하지 않는 비상한 용기와 자존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 장애는 다만 불편할 뿐이다.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장애가 아니겠는가.

열 린 마 당

문화재 관람료

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95년 관람료 정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료사찰 총수입금은 2백억7천여만원이며 관람객은 2천9백200여만명으로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찰의 관람료 순위를 밝혔다. 또 사찰에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알려 지기도 했다. 관람료 사찰의 허와 실은 무엇인지, 관람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복지·군법당 지원등 대부분 사회환원

도 후 〈신흥사 주지〉

지난 한해 신흥사를 찾은 참배객 및 관광객은 2백89만명으로 전국 관람료사찰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처럼 설악산에 자리한 신흥사에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다. 사람이 많다보니 수행도량으로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오는 사람을 막을 이유는 없다. 이왕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불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신흥사는 관람료를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신흥사는 지난해 속초에 9억원을 투자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장학금 지급, 경로잔치 등 관람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사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있다. 물론 관광사찰에 걸맞는 포교에도 빠지지 않는다. 특히 군부대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군법당지원도 앞장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람료사찰이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관람료사찰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총수입의 절반이다. 몇몇 사찰 이외에는 대부분의 관람료사찰은 문화재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사찰은 대부분 오래된 한옥으로 유난히 손길이 많이 간다. 보통 10여채가 넘는 대형전각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 관광지에 자리한 사찰은 특성화를 기해야 한다. 사찰과 관광객, 지역사회가 일치되도록 연구 검토해야 한다. 레저산업이 발달하는 미래사회에서는 관광자사찰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금으로 적립 종단 목적사업에 활용

종 광 〈조계종 종회의원〉

1천6백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국불교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사찰과 정부당국은 문화재의 보호, 유지를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화지관람료는 문화재 정비는 물론 당해사찰의 불사등 사찰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가 불교전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재고해 보아야 한다.

우선 문화재관람료사찰은 대체적으로 신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회의원으로서 종정감사차 문화재관람료사찰을 감사한 적이 있었다. 감사결과 대부분의 사찰이 역사와 규모에 비해 신도가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모사찰의 경우 1천년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60명에 불과했다.

사찰이 수행도량이란 본분을 잃고 단순히 문화재를 위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관람료로 인해 포교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에 신도관리등 사찰운영에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관람료사찰의 주지직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으로 불교발전을 위한다면 관람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당해사찰이 필수금액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종단 공금으로 적립해 범종단적인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하겠다.

성지·성보 보존에 쓰고 쓰임처 공개

안 후 상 〈불일미술관 연구원〉

불교의 성보가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대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는 않다. 오히려 전통 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고조됨과 함께 교계 내부에서도 성보를 포교의 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음이다.

모름지기 불교의 성지와 성보로 인해 2백억7천9백여 만원이라는 관람 수입이 95년 한 해 동안에 발생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수입이 아닐 수 없다. 선대 스님들의 덕택임과 아울러 우리의 전통은 '불교'라는 당연귀결의 원칙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 바로 교리의 근간인 '보시' 즉 '복지 문제'에 불교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나 싶다. 선대들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 얻어진 가치로 이제는 보다 근본 교리를 널리 펼치는 일에 투자해야 할 때다.

다음은 이 수입료가 성보의 보수나 관리에 쓰여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의 성지나 성보로 인해 얻어진 가치는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돈을 내고 관람을 하는 불자건 일반인이건 간에 '아 내가 낸 관람료가 이러한 곳에 쓰여지는 구나'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각 사찰 내에 분명한 쓰임처를 밝히는 안내문이 든 '판'을 세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바로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신뢰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부에서

관람료사찰 신흥사등 59곳

문화재 보수비예치 30% 분담금 17%

7월부터 자율화… '관리법' 제정안 마련

현재 관광지에 위치한 사찰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내무부가 징수하는 공원입장료와 당해사찰이 관리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내야한다.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안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불국사 신흥사를 비롯 전국 59개이며 이 가운데 미이산 탑사, 승주 선암사를 제외한 57개사찰이 조계종 소속이다.

문화재관람료는 각 사찰마다 2백원부터 최고 1천 7백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관람료 수입 가운데 불국사가 31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관람료를 받았다. 10억원 이상인 사찰은 불국사 석굴암 신흥사로 총수입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년 관람료수입이 1억원을 넘지 못하는 사찰도 17개로 집계됐다.

조계종의 경우 관람료 사찰은 관람료 총수입의 30%를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문화재보수비로 예치하고 12%를 관람료분담금으로 총무원에 납부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중앙승가대 이전불사가 완료될때까지 한시적으로 교육특별분담금 5%를 부담하고있다.

문화재보수비는 지방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 당해사찰과의 마찰이 빈번하다. 또한 문화재관람료의 결정권이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단체장에게 있어 공원입장료가 매년 10%정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된 반면 관람료는 수년째 등결되어있다.

문화재관람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율화된다. 문화재보수비예치금과 관람료 결정 등의 권리를 당해사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관람료관리법'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준엽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생태계에 큰 구멍이 생기니…

목어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박근련(朴根蓮·59) 보살은 정신지체자들의 어머니이다. 1백여 정신박약아들의 호주인 그는 진정한 '어머니의 정'을 그들에게 쏟고있다.

"임신경험이 있는 여자원생이 밖에 나가 애인을 정허놓고 들어와서 결혼을 졸라 댔어요. 엄마된 입장에서 선을 보러 나가보니 상대방은 하반신 지체부자유자였어요. 집에 돌아와 자능이 낮은 그녀에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남자임을 설명하면서 내 아들·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복지촌을 세워야겠다고 발원했습니다."

비록 정박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청춘이 있음을 볼때면 박원장은 가슴이 저렸다.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었다. 그에게는 1백여 원생 모두가 열손가락처럼 소중했기 때문이다. 박원장은 원생들에게 자립하고 결혼하여 엄마 아빠가 되는 기쁨을 안겨 주고 싶었다. 그는 도자기 작업장 수편물실을 지어 원생들 솜씨를 전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지난달 3쌍의 원생 부부를 탄생시켰다. 10년쯤 걸렸나. 그날 밤 박원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것은 보살의 기쁨이었다.

"저들은 사회에 섞이면 살지 못하고 다시 바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회에 미칠 영향과 저들 개인을 생각할 때 제 남은 생을 다 바칠 가치가 있다고 결론내렸어요."

박원장의 "悲의 원력"은 60년 시아버지가 세운 서애고아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시아버지를 도와 고아들을 보살폈다. 그후 남편 황선무거사(송도 신경정신외과 원장)가 '한국 정서장애자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고아원을 정박아 보호시설로 변경했다. 황박사의 논문은 삶의 현장에서 다시 꽃피었다. 박원장은 남편의 병원수입을 샘물퍼내듯 재활원에 퍼 넣었다. 천마재활원은 84년 송도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지금의 천마산 기슭에 새 둥지를 틀었다. 박원장은 거기에 1천2백평 규모의 복지촌 건립의 꿈을 가꾸고 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여기 저기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박근련원장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련 보살

바로 잡습니다

본보 제 71호 17·18면 수덕사 기사에서, 한국 선종 본찰의 선맥을 이어온 혜암스님은 해인사 방장스님이 아닌 故 혜암스님이므로 정정합니다. 당우와 산내암자에서 영령각과 구례암, 청승당은 현존하지 않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금선대에는 만공스님의 영정과 유품뿐만 아니라 경허스님의 것도 보관돼 있음을 추가합니다.

또한 총 1백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착수한 수덕사의 중창불사는 역사 지리 건축 문화재등 관련학계의 고증으로 덕숭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건물이 위용을 갖추고 대웅전을 외호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조인정사는 범종각 위치로 옮길 예정임을 밝힙니다. 성보전시관에 전시될 유물로 공민왕이 소장했다가 만공스님에게 전해주었다는 거문고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서광유치원은 수덕사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국 장의문화에 기여할 '탑린공원'은 '탑림공원'의 오식입니다.

수덕사 기사에서 내용상의 오류 오자 등으로 누를 끼치게된 점 주지스님께 사과드립니다.

공 고

제120회 중앙종회에서 제18교구본사 백양사가 1996년 4월 1일자로 古佛叢林으로 결의되어 백양사 승가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정규 승가대학으로서 명실공히 운영하게 되어 자율적인 분위기속에서 공부와 운력, 예불을 일상 수행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뜻있는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학 제 : 3 년

※교과과정

區 分	科 目	期間	區 分	科 目	期間
毘奈耶班	沙彌律儀	3개월	修多羅班	華嚴頓談	3개월
	緇門	5개월		增一阿含經	15일
	佛遺敎經論(원조소)	2개월		涅槃經	15일
	梵網經(지욱소)	2개월		金剛經五家解	2개월
阿毘達磨班	四集	6개월		楞嚴經	2개월
	因明論(명욱소)	1개월		法華經會義(지욱)	3개월
	俱舍論	1개월		圓覺經(함허소)	1개월
	唯識論(지욱소)	2개월			
	中觀論	1개월			
	起信論(원효소)	1개월			

■ 신청기간 : 96년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
■ 불교학개론(지선스님), 불교예술(이태호교수), 불교문학(이순규박사), 서 예(호월스님) 등 각계에 권위있는 전문 강사진의 특강 준비중
■ 준 비 물 : 가사(오조포함), 장삼, 발우
■ 구비서류 : 승려증(복사)1부, 건강진단서1부, 사진3매
■ 입 방 비 : 없음(모든 교재는 자체 제작하여 무료로 지급함)
■ 문의전화 : (0685)92-8789(백양사 강원)

불기2540년 4월 1일

백 양 사 강 원

강주 혜 권 학장 지 선

공 고

제120회 중앙 종회에서 제18교구본사 백양사가 1996년 4월 1일 자로 古佛叢林으로 결의되어 방장스님을 추대하고저 산중총회를 종헌 제91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1996년 4월 20일 오후2시(음 3월 3일)
2. 장 소 : 백양사 향적전
3. 안 건 : 총림 방장 선출
4. 참석대상 :
   1)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2)임명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3)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2년 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5)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승려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될수 없는 자
   ① 종단에 재산을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권리인 또는 관리인
   ② 법인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③ 제적의 징계를 받고 복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려
   ④ 기타 종헌 종법 또는 호계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권이 상실. 정지 또는 제한 된 승려.

1996년 4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8 교 구 본 사 백 양 사

주 지 최 지 선

충효·환경등 불교사상 반영 미흡

中도덕·高윤리교과서 불교내용 분석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제 6차 교과과정 개편이후 양적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문제 효사상 직장윤리 뇌사와 장기이식등에 대한 불교적인 인용이 없어 교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3일 전국교법사단 창립 5주년기념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내용에 관한 고찰' 세미나에서 밝혀졌다.

부처님 생애 와전…동양사상 유교중심 집필 중학
교리 해석 불충분…신라 팔관회 도교행사로 고교
정확한 기술·내용보완 위해 교계차원 관심 절실

중학교 '중학교 새 도덕 교과서에 기술된 종교·사상의 비교'를 분석한 채성만 교법사(광동중)는 새 도덕교과서에서 동·서양의 종교·사상 내용의 수록은 동양이 34회 서양이 6회로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양사상내용중 불교가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의 인용이 22회인데 반해 불교는 5회로 기독교 서양사상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교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속오계, 생명존중사상, 평화애호, 호국불교사상, 부모은중경등 불교의 도덕적 교리가 우리민족에게 습화된 내용이 유교에 비해 월등함에도 애국, 효도, 심신수양, 자연존중사상이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사상으로 단정하고 이런 가치들이 유교와 도교의 전유물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함께 현대사회와 시민윤리등은 기독교의 예정설에 바탕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 서구의 시민혁명과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생각케 했다며 서구사상이 현대의 근검절약과 기업정신에 어바지했다고 기술하고 있어 동양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듯한 인상을 질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물면에서도 부처님은 제1단원 '삶과 도덕'에 수록하여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 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고 기술하는 등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에 문외한 학생들에게는 불교교리가 적극적인 사회참여임에도 불구, 염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며 소극적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로 비쳐지는 불교교리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또 불교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을 윤리적 입장으로 정립하고 있고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강조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억불정책이후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불교 자체가 은둔적, 소극적 종교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채성만교법사는 "불교사상의 실천적 측면을 부각, 인지할 수 있는 학문연구와 교계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불교사상의 개인 윤리적 측면뿐 아니라 대사회적 적극성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균형잡힌 도덕교육과정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의 지도를 위한 고찰'에서 고우익교법사(동대부중)는 구교과서에서는 불교관련 내용이 1백42행인데 비해 새교과서는 2백36행으로 증가됐지만 이에 반해 오히려 난해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空, 和諍, 中道 등의 간략한 표현은 불교의 난해함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교의 다양한 교설이 많은 가정·직장·시민생활, 뇌사·장기이식·생명의료윤리등에 불교의 배제도 두드러지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는 오늘날의 환경운동을 이끄는 서양의 환경이론가들이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의거 이론을 정립하고 있음에도 교과서에서는 도가사상만 다루고 있으며, 국가이론도 동양의 대표적 국가이론으로 도가, 법가, 유가의 이론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孝)도 불교의 효사상은 거론이 없으며 정치이론도 불교의 전륜성왕등 정치이론은 빠진채 공자의 道德정치, 맹자의 王道정치, 순자의 禮治정치, 노자의 小國寡民사상만을 소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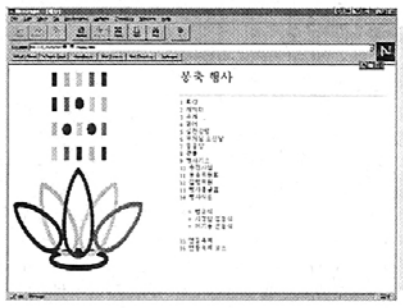
특히 직업윤리의 경우 "직업에 충실한 것이 바로 신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그러므로 직업은 소명이며…"라 하며 3~4차례에 걸쳐 신의 부르심 등으로 강조하는 것은 전통사상을 강조하는 윤리교과서의 일관된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불교의 팔관제(八關齋) 정신을 국민윤리적 차원으로 확대한 신라시대부터 중요한 의식이었던 팔관회를 일방적으로 도교행사로 기술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원우 기자

인터넷에 "부처님 오셨네"

본사 부다피아 18일부터 각종 봉축행사 실시간 서비스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가 불기 2540년 봉축행사안내 홈페이지를 가동, 18일부터 지구촌 곳곳에 부처님 오신 뜻을 전한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열리는 각종 봉축행사 전반을 인터넷 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본사 전략정보기술팀과 봉축기획단·불교문화원이 협의체제를 구축해 만든 '불기 2540 봉축행사 안내' 홈페이지가 오는 1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올 부처님 오신날 기념 휘장에 대한 소개와 각 행사의 의의를 비롯 봉축행사 전반을 일정별로 안내하는 이 홈페이지는 매일매일의 행사를 점검하고 행사 결과와 새로운 소식등도 리얼타임서비스 체제로 운영, 신속한 봉축행사 안내를 한다.

부다피아 홈페이지가 안내하는 주된 내용은 봉축법요식, 연등축제, 시청앞 점등식, 원각사지 탑돌이를 비롯 문화행사, 학술행사 등이며 제공된 내용은 년간지속,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상의 부다피아로 들어가 '불기 2540 봉축행사안내' 홈페이지를 찾아 각 안내 서비스 항목을 열람하면 된다.

부다피아 봉축안내 홈페이지
http://www buddhapia.co.kr/Bongchuk

"동국대 발전 곧 한국불교 발전"

동국대 개교 90돌 행사 확정 발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일 동국발전을 위해 황해대탐사, 세계불교학술회의, 국악음악제 등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를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황해대탐사는 5월10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절강성을 출발해 흑산도, 고군산반도를 거쳐 인천까지 총 1천20㎞를 뗏목을 이용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게 된다. 또 2학기 행사로 개최되는 세계불교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학술문화관에서 개최한다.

뗏목 황해대탐사
세계 학술회의
중국 민속공예전

이날 송석구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국발전이 곧 한국불교가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을 원만히 개최해 동국발전의 기폭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일산 제3캠퍼스 건립, 역경원 및 정문신축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90돌 개교기념 주요행사

행 사 명	일 자	장 소
경주캠퍼스 법종타종식	4.17	경주캠퍼스 종각
4·19기념 등반대회	4.20	북한산(서울)
〃	4.18	경주남산(경주)
개교기념식	5.7	학술문화관
KBS 열린음악회	5.7	대운동장
중국민속공예전	5.6~5.17	학술문화관
수계식	5.14	정각원
부처님오신날	5.15	KBS홀
봉축기념음악제		
비전동국100년후원의밤	5.29	힐튼호텔 컨벤션홀
불교학술회의	5.17	학술문화관
분당한방병원 개원	5.8	(예정)
동국불교미술인회 전시회	6.19~6.25	공평아트홀
현대불교미술 전시회	5~5.31	학술문화관
등국 건축전	5.20~5.23	원흥관
경주남산살리기 실천대회	5.26	경주남산
황해문화대탐사	5.10~5.26	중국림강성~인천
세계불교학술회의	10.24~25	학술문화관
한국문학학술회의	9.19~20	학술문화관
국악대음악제	10	(장소미정)
비젼! 동국100년후원의밤	9.11	경주 콩코드호텔

시 론

조상모시기와 다비

이 훈 종
〈우리문화연구원 명예원장〉

광복되기 전이니까 무척 오래된 얘기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가벼운 차림으로 서울 교외로 산책을 나섰다. 모처럼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어 먼지 이는 큰길을 버리고, 야산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웬 새 자전거가 길섶에 세워져 있기에 아직 20대라 장난기로 우리 훔쳐서 번갈아 타고 가자는 등 싱거운 소리를 주고받는데 앞서 가던 친구가 손가락을 세워서 입에 대고 뒤돌아본다. 다음 순간 우리는 숙연해졌다.

산소와 대화해온 겨레

잔 솔밭 사이의 납지락한 산소를 깨끗하게 벌초(伐草)하고 소학교를 갓 졸업했을 연배의 소년이 끓어앉았는 것이다. 몸에는 일본 옷을 입고 감색으로 물들인 앞치마를 두른 수가, 일본인 점포에서 고용살이하는 모양이다. 양손을 깍지껴 합장하고 앉았는 그의 눈은 꼭 감겨진채 꼼짝을 않는다.

"어머니?-아니면 아버지-반드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보여 드리오리라."

그런 중얼거림이 귓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런지 오륙년만에 광복을 맞았는데, 그때 그 소년은 어찌 되었는지? 고용살이하던 일본인 업체를 인수받아 성공하였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그 산소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한번은 고향 가까운 곳에,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을 남긴 학자님의 초라한 산소가 있던 것이 생각나 찾아 나섰다. 그리 그대로 있다면, 고장에 알려 기념사업이라도 펼쳐볼 그런 의도에서였다. 그런데 내리 뒤지고 치 더듬어도 흔적이 없다. 이만치 내려와 삼거리에서 알만한 사람을 만나 물었더니 "자손이 이민가면서 화장해 없앴지 뭐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허탈하기라니….

"재미가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농촌에 가면 집뒤에 종종종 산소가 있어, 칠월이면 애들 데리고 올라가 금초하고, 밭에서 참깨를 베어오면 주저리를 묶어 그 앞으로 줄지워 세웠었다. 그러다가 누렇게 색이 변하며 송이가 벌면, 홑이불을 내다 펴고 돌러앉아, 그놈을 가져다 거꾸로 들고 막대기로 톡톡 두드려서 떤다. 그때 솔솔솔솔 쏟아지는 그 재미라니…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기에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깨가 쏟아진다'고 했을까?

벼타작을 하고 나면 볏짚을 산소제절에 펴고 봉분에까지 덮어 널고는 황금옷을 입으셨다며 웃기도 하였다. 남의 소작을 하다가 처음으로 논을 사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추석날 거기서 난 햅쌀로 송편을 빚어 올리고 할아버지는 감격해 눈물을 비치기까지 하셨다.

지금 명절이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표현할 정도로 귀성객·성묘객으로 길이 꽉 막힌다. 그런데 절 받으시던대로, 농촌을 지키시던 그 어른들이 세상을 뜨셨을 때, 산소는 누가 돌보며 누굴 뵈오러 고향길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어른을 모시고 얘기를 듣듯 조상 산소와 대화하며 살아왔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지켜갈 수는 없는 일이다.

온화한 기후와 기름진 농토의 혜택을 받아, 우리는 실로 오랜동안을 이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왔다. 지정의(知情意) 세 분야에서 정에 무른 때문에, 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대로 살면 되는 도덕률도 지상의 낙토다. 우리가 일상에 미안(未安)하다는 말을 흔히 쓰는데, 미안이란 마음에 편편치 않다는 얘기요, 편편치 않은 그 마음은 양심이다. 우리 고유의 하느님 마음씨요 부처님의 뜻이다.

효심은 남다르건만 이민을 떠나면서 산소를 욕되게 할 수 없어서 차라리 소(燒)해 없앤 심정을 우리는 이해한다.

길을 가다 '차선을 지키자'고 한 표지판(標識板: 표식이 아니다)을 보고 나는 웃는다. 차선(車線)은 물론 차다니는 길이지만 차선(次善)도 된다. 최선(最善)은 못되지만 그 다음쯤은 되는 것을 말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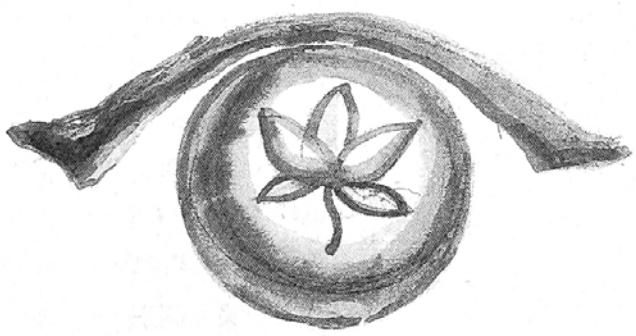
현실에 맞게 또 미안하지 않게 차선을 지키는 길은 없는 것일까?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호화분묘를 꾸미는 특권의식은 오히려 조상을 욕되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다. 여러해만에 유학길에서 돌아온 손자에서 "할아버지 산소? 그런 거 없애버렸다" 하기도 딱한 노릇이다.

그래서 '나라면?' 하고 생각해 본다. 집안에서 고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고 그 이상은 산으로 가 시향(時享)을 모시는데, 위토(位土)마련이 없는 산소는 없앤다. 금방 돌아가신 분을 불에 넣기가 미안하거든, 가매장했다가 눈물이나 마르거든 돈구어 다비(茶毘)해서 한 분상에 모셔놓고, 수호와 치장에는 정성을 쏟아, 자라는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하자.

다음 세대 일은 너희끼리 알아 상의해서 미안하지 않게 하면, 일단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나는 보련다.

생활속의 불교 ⑦⓪

내가 곧 진리요 길이니 어찌 어렵다 하랴



가르침에는 선문(禪門)과 교문(敎門)이 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말의 방편을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 교문이 선다. 반면에 말이나 문자에 얽매이면 자연히 관념의 세계-알음알이가 따르게 되니 선문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불성이다, 진여다, 부처다, 여래다 등등의 이름을 붙여 놓고서는 한편으로 이를 다시 부정한다.

이름 붙임은 교문의 부득이한 일이요 이를 부정함은 선문의 부득이한 일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 느껴진다.

법에는 불구부정, 불생불멸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인연따라 나투고 사라지는 생멸의 법이 있다. 하나는 절대 세계를 이름이요 다른 하나는 상대 세계를 말함이다. 따라서 진여의 법과 생멸의 법은 엄연히 달라 보인다. 중생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불이의 법에 이르면 둘은 같다.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선사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비논리적인 까닭은 교문으로 들어온 이를 선문으로 인도하고자 함이요, 생멸법의 잣대로 분별 사량하는 것을 깨뜨려 진여법에 눈 뜨게 하기 위함이다.

가령 불법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어떤 스승이 불법이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자상하게 일러줬다고 하자. 그러면 답을 들은 이는 '아하, 불법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지 스승의 세계가 아니다.

보고 듣는 감각 작용이 분별에 의지하는 한, 호랑이가 고양이로, 고양이가 호랑이로 둔갑하기 마련이다. 우리들의 일상이 시비·논쟁·주장·분별·가치판단 따위로 가득 찬 것 자체가 그 점을 대변한다. 그러기에 불법은 끝내 언어도단에 부딪힌다.

그래서 불교는 또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불법을 공부하기가 세수하다코 만지기 만큼 쉽다고 말하는 선사도 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짐짓 역설로 그런 것이 아니다. 불법 공부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니 무엇이 그리 어렵겠느냐는 말씀이다.

생멸의 법도 네 살림 속에 있고 진여의 법도 네게 있으니 자신을 밝히면 그것이 곧 불법이요, 불법 공부의 전부라는 것이다. 선문 교문이 다 '나'로 귀결되고 생멸변 진여법이 다 '나의 것'인 즉 '나' 이외에 따로 법이 의지할 곳은 없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지처는 너뿐'이라는 자등명(自燈明)을 이름이다. 따라서 불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이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함께 하니 중생은 모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불법 공부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니 내가 화두요 나의 생활이 곧 참선의 도량이다. 따라서 불법 공부는 스승이 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마치는 공부다. 어렵다고 푸념할 까닭이 없다.

요컨대 자기를 돌아봄이 핵심이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고작해야 시비분별만 잡초처럼 일어날 뿐 몇 생을 거듭해도 불법을 알 수는 없다. 알고자 한다면 안으로 눈을 돌려 자신을 보라. 보되 낱낱이 보라. 본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보고 또 보라.

'불법이 뭡니까'의 답은 그곳에 있다. 교문도 선문도 그곳에 있다. 생멸법 진여법도 그곳에 있다. '나'는 곧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자등명이면 불법공부는 쉽다. 새록새록 맛이 있다.

협찬 : 이 경 민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법회 안내

쌍계사(0595)83-1901
보살계 22일 오후2시 입제
정대불사 24일 오전8시

해인사(0599)31-1001
정대불사 28일 오후4시 입제

통도사(0523)82-7182
보살계 22일 오전10시 입제

대둔사(0634)34-5502
보살계 28일 오후2시 입제
서산대사 기념법회 29일 오전11시

약수사(051)555-4332
인등법회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영주암(051)754-2210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육바라밀 매월6일(음) 오전10시
연등참회 매월5일(음)오 전10시
지장재일 매월18일(음) 오전10시

대안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공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보현사(0391)42-9437
일반신도법회 1, 15일(음) 오전10시

등명락가사(0391)44-5475
일반신도법회 1일(양, 음)오전11시

화암사(0392)33-5827
통합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관음사(0392)33-2688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일반신도법회 3, 15일(음) 오전10시

사문선원(0394)31-3125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대원사(0394)33-2603
일반신도법회 매월1, 2, 3, 15, 18, 24일 9음) 오전10시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2일 오전11시

단봉사(0361)261-0436
일반신도법회 3일(음) 오전10시

지암사(0361)242-6546
일반신도법회 1, 15일(음)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보문사서 식목일 기념식수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강화 보문사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불교인이 자연환경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자고 당부했다.

28일 혜명선원 이전 개원법회



현호스님은 지난 16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번지에 명상 수행도량 정화사 혜명선원을 이전 개원했다. 개원법회 및 현판식은 오는 28일 정오.
(0415)867-7766

길상사서 원효사상 법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은 오는 18일 길상사에서 원효사상을 주제로 법회를 봉행한다.

한중일 3국 원로 서가전



김응현선생(동방연서회장)은 지난 10~16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 啓功, 林錦洞씨등 한중일 3국원로서가전을 주최했다.

소년가장돕기 음악회서 법문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은 오는 28일 오후2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불교음악회에 참석, 법문한다.

도자기·서화 개인전 열어

법철스님(문수사 주지)은 15일부터 20일까지 부산일보사 전시실에서 도자기, 서화개인전을 개최한다.

대전시민회관서 강연



고은씨(시인, 본지 논설고문)는 개관 3주년을 맞은 법동사회복지관의 초청으로 오는 23일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강연회를 갖는다.

'소설 달마대사' 출간



한정섭법사(불교통신대학원장)는 최근 달마대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대사의 사상을 알기쉽게 소설체로 정리한 〈소설 달마대사〉를 펴냈다. 이와 함께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와 교리강좌에서 방송했던 신행상담 사례등과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등 자료를 묶어 책으로 엮었다.

삼보회 창립32돌 기념법회

신근식씨(대한불교삼보회 회장)는 오는 21일 오전10시 정릉 삼보정사에서 창립 3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성문여행사 회장 취임



양범수씨(전 불교신문 편집국장)는 최근 성문여행사 회장으로 취임, 마포구 공덕동에서 종로구 청진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22-2233

경주 남산일대 문화기행

성재드씨(부산불교교육원장)는 지난 14일 일반인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경주 남산일대의 문화기행을 실시했다.

부평포교당 천일기도 입제

권정기씨(마하연포교원 원장)는 오는 21일 오전10시 북부교육청 뒤로 새로 이전한 마하연 부평포교당에서 천일기도 입재와 부처님 첨안식을 봉행한다.

봄철 안전운행 기원법회

백봉도씨(부산불교운전기사회장)는 지난 7일 문수암(주지 지원)에서 춘계 안전운행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불구전문점 삼복사 개업

장은조씨(전 법보신문 광고부장)는 최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맞은편에 불구점 삼복사를 개원했다. (02)733-0903

게시판

▲**자원봉사자 교육**=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26일까지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 교육 후 주 1회 2시간정도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한다. (02)985-0161

▲**생활 강좌**=구룡사문화센터에서는 불교기초교리 서예 수지침 선체조 등 생활강좌를 마련하고 남자 및 직장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02)575-7766

▲**자기표현훈련 강좌**=시립목동청소년회관은 소집단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을 온화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를 마련했다. 대상은 6, 7세 및 초등학생. (02)646-0781

▲**영어교실**=삼전북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교실을 개최한다. (02)421-6077

▲**후원자 모집**=개금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자녀, 가정형편상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 (051)893-5034

▲**보육교사 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초등학생 1, 2학년을 지도할 보육교사를 모집한다. (02)852-0525

▲**생활도예 교실**=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10시부터 기타 교실을, 매주 화·목요일 오전10시에는 생활도예 교실을 개강한다. (051)361-2063

▲**무료 합동결혼식 접수**=한국불교 대원회(이사장 박윤흔)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인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신청자에게는 신부 드레스, 신부화장, 기념사진, 식장을 무료로 제공한다. (02)754-1613

▲**정신대할머니 초청 위안법회**=영암 도갑사(주지 도현)는 16일과 17일 256명의 정신대 할머니들을 초청하여 위안법회를 개최한다. (0693)72-0521

▲**신앙대회 개최**=월간정토(발행인 법륜)는 오는 20~21일 경북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7차 신앙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철야용맹정진 하고자하는 불자면 누구나. (02)3471-3145

▲**행원상 수상자 추천**=(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역경 문학 예술 교수·학생연구 등 불교교육과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한 불자를 대상으로 행원문화상 추천을 받는다.(02)929-5004

▲**영남불교대학 禪서화전**=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은 오는 5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관음사 법당에서 본당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안스님과 일장스님등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 (053)475-3706

▲**여 종무원 모집**=조계사(주지 현근)는 종무소에서 일할 여자종무원을 구한다. 고졸 이상의 학력에 불자이면 된다. (02)720-6742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 김종서 위원장

"성직자대학원등 시정할 터"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교육제도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제 2기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종서 박사는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과 중·고교의 종교교육 실시등의 사안을 시정토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김위원장은 새로 위촉된 46명의 교원(12명), 대학, 언론인(22명), 기관 단체대표(12명)들과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제2차 교육과정 발표이후 파생된 민감한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앞으로 △교육개혁안의 보완과 수정 △교육자치제, 사학교육정책 마련 △보충 교육개혁안 마련 △교육개혁안 정착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정부종교정책 불교대책위원과 한국불교 재가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중이며 서울대교수, 덕성여대 총장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이다.

김원우 기자

위빠사나 호흡명상원 연 김열권 씨

"목사들도 매료…불자수행 절실"



"개신교목사들에 대해 광적이라고만 느꼈던 기존의 관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충남 서산기도원에서 참례교회목사 15명을 대상으로 위빠사나명상법을 지도한 김열권씨(43)는 목사들의 수행을 지도한 소감을 이렇게 말한다.

매일 15시간의 용맹정진과 강의가 강행되는 가운데도 목사들은 스님들의 수행에 버금갈 정도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속에서 김씨는 심지어 불교의 위기의식까지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일 서울 인사동에 위빠사나 호흡명상원을 개원한 김열권씨는 "하루에 한번 목사들과 수행면담을 하면서 불자들에게 먼저 명상법을 지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각 사찰의 불교학생회와 학교 학생회 포교사등을 대상으로 명상법 지도를 통한 포교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02)739-3353

김종근 기자



조계종 군불자에 위문품 보내기 운동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군불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군불교진흥회와 공동으로 위문품 보내기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지난 8일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를 초청,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금은 해·공군 각 1개 사단, 육군 8개 사단에 위문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군불교진흥회에서는 후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02)749-8646



한마음선원 신도회에 '법등모금' 감사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본사(대표이사 김광삼)와 공동주최한 '한마음법등모금운동' 1차 배포지였던 한마음선원의 신도회(회장 명을식)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신도회는 95년 12월부터 지난달 4일까지 9천여개의 저금통에 1천1백여만원을 모금,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복지재단과 본사는 이후 10만개의 저금통을 배포할 계획이다.



종교방송 사장단 초청 간담회

김영수문화체육부장관 초청 종교방송사 사장단 간담회가 지난 9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해형 불교방송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박신언 평화방송사장, 권호경 기독교방송사장, 주광조 극동방송과 아시아방송사장, 김용문 종무실장 등이 참석, 다종교사회 속에서의 각 종교의 화합과 종교언론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법륜장애인불자회 창립1돌 기념법회

법륜장애인불자회(회장 유봉건)가 지난 7일 도봉포교원에서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생명은 하나다'라는 선진스님(도봉포교원 주지)의 법문과 후원회인 운불련지역회 법륜회가 마련한 다과회가 마련됐다. 법륜장애인불자회는 지체부자유자의 모임으로 1년동안 신행 다지기에 전념해 왔다.



부산불교TV 염불공양모임 창립법회

망인의 극락왕생을 천도하고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부산불교TV 염불공양모임 창립기념법회가 지난 10일 同사옥 5층에서 봉행됐다. 성오스님(범어사 주지) 신허스님(표충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기념법회에서 염불공양모임 회장 하정선씨는 "수행과 신행이 둘이 아님을 자각, 불교의 생활화와 순수 봉사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밝혔다.

대한불교 해동종 임원 공고

종	정	석봉
사서실	실장	양규
원로원	원장	인현
	원로위원	경호, 선기, 성용, 순주, 상근, 해상, 덕균, 용우, 제형
총무원	원장	송산
	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경신
	재무부장	양규
	사회부장	학규
	교무부장	진웅
	종무위원	송담,영호
중앙종회	의장	성타
사정원	원장	법봉
	사정부장	상호
중앙연수원	원장	선기
	연수부장	경오
중앙포교원	원장	대원
	포교부장	평일
중앙복지봉사원	원장	대경
	복지봉사부장	법혜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원표
	문화예술부장	혜월
서울	종무원장	무주
강원	종무원장	대근
경기(인천)	종무원장	담원
충북	종무원장	법운
충남(대전)	종무원장	경희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원
경남	종무원장	백담
전북	종무원장	혜원
전남(광주)	종무원장	현각
해외일본종무원장		평일

◆ 본종과 함께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나갈 스님들의 등록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본 종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원효대사를 종조로 선교율을 수지선양하며 견성성불·전법도생함을 종지로 본종의 소의경전은 화엄경으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의 모체로써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으로 도생의 문을 열어서 교화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
전화 (0331) 281-0606, 262-1577
팩스 (0331) 262-1577

"인격까지 담아내야 진짜춤"

산문밖의 승무

태평무 인간문화재 **강선영** 씨

"처음에는 내가 춤을 추지만
어느새 춤에 내가 들어가 있다
잘났다는 생각도 성취감도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만 남은 채…"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며 절제된 '우리 춤추기' 60년
같은 동작 수만번 되풀이 '무아지경' 될 때 관객 감흥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이 접어 올린
외씨버선이여! 〈조지훈 '승무'〉

금박이 화려한 스란치마가 살짝 들리더니 하얀 버선코가 섬세하면서도 빠른 동작으로 흥겹게 움직인다. 우아한 고개짓에 따라 머리에 꽂은 떨잠들이 파르르 깜박인다. 호흡의 흐름을 따라 어깨동작으로 전해지는 몸놀림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원삼의 긴 소매가 하늘을 덮을듯 휘감긴다.

60년을 춤과 함께 살아온 강선영씨(72,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기능보유자)는 이제는 춤이 편안한 옷과 같은 느낌이다.

"태평무는 태평성대를 살던 왕비가 추는 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품이 있고 우아하기 이를데 없지요. 의상자체가 화려하기도 하지만 춤자체가 전아하고 절제된 동작의 미를 추구하면서 풀고 맺음이 분명하여 보는 이에 따라 감응의 폭이 아주 넓은 춤이 바로 태평무입니다."

한국춤의 특징은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며 특히 정중동(靜中動)에 그 묘미가 있다. 화려한 궁중복에 발디딤의 기교가 돋보이며 손놀림이 섬세하면서도 절도가 있는 태평무는 우리 전통춤의 흥과 멋을 잘 살려주고 있는 춤이다. 강씨는 "태평무에 맛들이면 다른 춤은 싱겁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라며 태평무의 매력을 한마디로 평한다.

고희를 넘겼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두 세번은 춤사위를 펼친다. 정기적으로 하는 공연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수생들과 교육을 겸해 함께 어울려 추는 춤도 즐겁고, 호젓하게 혼자 추는 춤도 즐겁다. 음악에 맞춰 둥싯둥싯 움직이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춤을 추지만 점점 고조돼 어느 시점에선가 춤의 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 있다.

춤인생 60년의 강선영씨가 말하는 성공한 무대는 보는 관객들도 깊이 몰입해 함께 어울려 춤을 추는 듯한 무대다. 춤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몸짓이며 인간의 희로애락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몸짓이며 그 어느 것보다 감응이 빠른 예술이기 때문이다.

눈에는 안 보이나 선연한 움직임들
그 깊이 잴 수 없는 속 쌓여가고 있었다 〈김원각 '靜夜'〉

강씨는 13세때 유명한 한성준씨의 문하에 들어가 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한성준씨는 1920년대 산재해 있던 우리춤을 집대성하여 민속무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무용문화의 전통계승의미를 실천적으로 일깨운 선각자다.

어렸을 때부터 보기만 해도 그대로 척척 따라 해 일찌감치 소질을 인정받은 강씨는 15세에 이미 일본공연에 나섰고 서울 부민관에서 첫무대까지 가졌다. 당대 최고 명고수이기도 했던 스승 한성준 선생이 직접 만든 창작무로 생전에 가장 아꼈던 춤이 바로 태평무다. 태평무를 이어가는 것이 강선영씨는 자랑스럽고 또한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선별안은 몹시 까다롭다. 춤에 있어서 그는 그지없이 엄격한 스승이다.

절제되면서도 자연스런 하나의 몸짓, 손짓, 발짓을 내기위해 수만번의 같은 동작을 되풀이해야 한다. 기나긴 인고의 연습을 통해야만 춤의 자기화가 이뤄지는 법.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사람됨됨이가 먼저입니다. 인격과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예술입니다. 표피적인 기교만 뛰어나면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춤을 위해 피나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아울러 사람다운 사람,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수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으로 그는 골잘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찾는다. 화가 나거나 탐욕의 마음이 일 때, 미움이 생길 때 염주를 돌리다보면 춤출 때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자기를 잊고, 주위를 잊고, 잘났다는 생각, 성취감까지도 놓아버린다.

무아지경에서 오로지 춤추는 자체에만 집중하는 오롯한 그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노라면 어느새 흔들림은 접혀지고 평정을 되찾는 것이다.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십이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눈이 녹아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류시화 '눈위에 쓴 시'〉

"수많은 움직임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집중시켜 완결시킨 경지로, 춤 한가락은 모든 삶을 응축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손짓 하나, 발짓 하나로도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살아있는 춤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대에 오른 것이 수백번도 넘지만 공연을 앞두고는 아직도 첫공연처럼 설레임과 흥분으로 밤을 지샌다는 노(老)대가는 좀더 완벽한 춤추기가 소원이다.

이경숙 기자

지장보살님처럼 되고싶어요

문 불자가 된지 오래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 열심히 지장보살님을 찾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히 지장보살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하며 저도 모르게 발원을 하게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전미순 · 부산 동구 초량동〉

답 지장보살님이다, 아미타불이다, 약사여래다, 이 모두가 다 이름일 뿐입니다.

편한대로 다른 이름을 불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뜻을 모르고 만약에 지장보살님이라고 위대하게만 보아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밖으로 찾는 결과가 되어 망념이 됩니다. 진정으로 지장보살이라 함은 내 마음속 무명의 굳은 땅에 파묻혀 있는 보배인 불성을 말하는 것인줄 알아야 합니다.

지장보살, 아미타불이 다 이름이라 하는 까닭은 불성인즉 그런 이름만 가진게 아니라 그 숱한 보살님, 부처님의 명호를 다 가졌기에 따로 지장보살이라고만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지장보살님을 따로 떼어놓고 명호를 왼다면 이미 거기엔 형상의 뜻이 붙으니 결과적으로 밖으로 찾는 일이 되고 맙니다.

불성은 모두의 근본진리인 동시에 제불보살의 명호를 다 아우릅니다. 이와같이 모두는 다 하나로 결합되어 한군데로 들고 나니 이를 종합해서 주인공! 했던 것입니다. 밖으로만 찾지 않는다면 이름을 무어라 하든 관계없습니다.

모 교주가 천상구원을 주장하는데

문 저는 얼마전까지만해도 한국에서 시작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기를 하늘은 9천으로 되어있는데 부처님과 보살님은 7천에 계시고 그 교의 교주님은 구천에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준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상군 · 인천 서구 가좌동〉

답 그분이 지금 천상에 있다고 하면 이미 없는 것입니다. 천상이 천상이 아니고 대지가 대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라면 어디부터가 하늘입니까.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또 무슨 구원입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가령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어이쿠 하고 그냥 뛰어들어 건질뿐이지 구할까 말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해준다 아니다도 불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이 붙는다면 벌써 빗나간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보았자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의 나를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스님이 석존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왔다할지라도 나를 믿으라 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께 밖으로 구하라는 게 됩니다.

그러나 천상에 있다해도 그렇고 없다해도 그렇고 이 스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끼어듭니까.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부처님도, 천상도, 교주도 그대가 없다면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의 뜻도 알게 되고 그 교주의 말도 알게 됩니다.

지금 석존께서 앞에 나타난다 해도 '나는 천상에 있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눈을 떴던 못떴던 간에 진리에 누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생각에 매여 있어요

문 스님께서 '길을 묻는 이에게' 난을 통해 '놓아라' 하시는 법문을 하신 것을 접하고 다가오는 경계를 놓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놓는다고 하다보니까 막상 놓아지기 보다는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동열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줄 압니다. 어떤 분은 내게 '스님 다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문합니다. '왜 놓는다면서 그 놓는다는 생각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놓는다는 생각까지도 놓을 수 없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놓는 게 아니지요. 실은 들고 있다, 놓고 간다도 없습니다. 그냥 한 생각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그 생각에 걸려서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그냥 놓고 가면서도 얽매여 있으니 한생각 툴툴 털고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사께서 부처님 나오심이 평지에 풍파를 일으킴이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죽여서 개에게나 던져주리라 하셨다는데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는 이 생활이 그냥 놓고 감인데 거기에 연지찍고 곤지찍으니 이리 걸리고 저리 불편해지고 하는 것을 말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찰나찰나의 생활이 실은 그대로 놓고가는 삶입니다. 자신이 그때그때 아버지가 되었다가 남편이 되었다가 하는게 놓고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붙잡으려 하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으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붙든다는 것도 없고 놓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발걸음 그대로이면 굳이 놓는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법련사 대웅보전 '삼세여래상(三世如來像)' 점안식 및 7일간 특별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병자년 새봄을 맞이하여 두루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정도 6백년만에 조선왕조의 정궁인 경복궁 동문 바로 앞에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선양하는 수행과 포교의 도량이자 정신문화 창달의 전당이 될 수 있는 법련사 영산 대법전(靈山大法殿)을 장엄하게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불교를 생활화하고 전통문화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값진 문화유산이요, 대복전(大福田)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이룩한 대작불사(大作佛事)이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나면 환희에 찬 심경(心境)인 것처럼 갖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영산대법전이기에 더욱 뜻깊고, 기쁜 마음 다 헤아릴 수 가 없나봅니다.

이 기쁜 마음을 인연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진리의 법등(法燈)이 계계승승되기를 발원하면서 대웅보전에 봉안할 삼세여래(三世如來)인 과거 연등불과 현재 석가모니불, 미래 미륵불을 조성하여, 그 점안법요식과 함께 7일간 특별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바라옵나니, 이 불사에 수희동참한 모든 이들은 무루 동참하시어 소원성취는 물론 수승한 법연(法緣)을 맺으시길 합장하나이다.



조계종림 서울분원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송광사
법 련 사

우 110-190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20-1
☎(02) 733-5322,

조계종림 방장 廻光 송광사 주지 玄 果
법련사 회주 玄 虎 서울불일회 회장 趙達空 합장

삼세여래상(三世如來像)점안법요식

- 일 시 : 1996년 4월 25일(음3. 8) 오전10시
- 증 명 : 月下 스님(조계종 종정, 영축총림 방장)
  昔珠 스님(조계종 원로, 칠보사 조실)
  慧菴 스님(조계종 원로의장, 해인총림 방장)
  廻光 스님(조계종 원로, 조계총림 방장)
  圓澤 스님(조계종 원로, 덕숭총림 방장)
  日陀 스님(조계종 원로, 전계대화상)
  道堅 스님(조계종 원로, 해인사 선덕)
- 법 주 : 雪靖 스님(조계종 종회의장)
  世敏 스님(수안사 주지)

7일간 특별법회 안내

- 일 시 : 1996년 4월 26일(음3. 9)~5월 2일(음3. 15)
  기도법회 : 매일 오전 10시
  설 법 회 : 매일 오전 11시
- 설법주제 : "부처님은 누구신가"
- 7일간 특별법회 일정표

	일 시	법 사	비 고
제1일	4월 26일(음3. 9)	月誕 스님	전 종회의장, 전 법주사 주지
제2일	27일(음3. 10)	無比 스님	범어사 강주
제3일	28일(음3. 11)	岩度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제4일	29일(음3. 12)	慧印 스님	제주도 약천사 주지
제5일	30일(음3. 13)	玄海 스님	월정사 주지
제6일	5월 1일(음3. 14)	泰應 스님	불교TV이사장, 전 통도사 주지
제7일	2일(음3. 15)	雪靖 스님	종회의장, 전 수덕사 주지



◇백제 특유의 양식을 보이는 태안 마애삼존불. 최근 이 삼존불은 미륵보살(中) 석가불상(左) 다보불상(右)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 마애불 6세기말 조성"

문명대교수 주장

삼존불 중국도상 비교 새로 命名

태안 마애불상은 7세기초가 아닌 6세기 말경에 조성됐으며, 불상 명칭 또한 관음보살(중앙보살상), 약사불상(左불상), 석가불상·아미타불상(右불상)이 아닌 미륵보살·석가불상·다보불상(중앙·左·右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명대교수(동국대)는 지난 13일 동국대에서 열린 '미술사 학술세미나'에서 95년 5월부터 실시한 태안마애삼존불상의 발굴보수작업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발표했다.

문교수는 태안마애불의 경우 삼존형식과 체구가 당당하다는 점 등 隋初 唐불상의 영향을 반영한 7세기 전반기로 제작연대가 추정돼 왔으나, 불의(佛衣)의 장식적인 양식이 중국의 6세기초 북위말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얼굴의 대담한 표정, 파격적인 미소와 체구의 장대성, 대좌의 연꽃무늬 등은 중국 동서魏양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북제 양식 불상의 특징과 유사한 등 늦어도 北齊·隋初 양식과 흡사하기 때문에 6세기의 3/4분기나 4/4분기의 양식으로 단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상 명칭은 지금까지 중앙보살상이 관음보살로, 좌불상이 약사불상으로, 우불상이 석가불상 또는 아미타불상으로 알려져 왔으나 중국의 도상(圖像)과 비교사적 고증을 거친 결과 좌우, 석가·다보불과 중앙 미륵보살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보살의 경우 당시 주요 신앙의 예배대상의 근거와 보주(寶珠)를 잡은 수인을 한 보살은 관음보살이 보편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관음보살로 추정돼 왔으나, 寶珠는 석가불상 협시상이나 미륵보살·미륵불상 협시보살 등 어느 보살상이나 다 가질 수 있는 통인(通印)이기 때문에 도상적으로 관음보살설은 유보해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左·右불상은 중국 北周 大像2년銘釋迦佛像(580년, 상해박물관소장)과 초기 인도불상의 도상에서 나타난 예로 볼 때 左불상은 석가불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한 右불상은 어느 불상이나 지을 수 있는 통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도상과 불교신앙사상의 특징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당시의 도상으로 이불병좌상(二佛竝左像)의 명칭은 다보(多寶)·석가(釋迦)불 밖에 없으며 중앙이 보살상이기 때문에 좌우 두 불상이 병립해 있다고 보아 이불병좌상이 분명하므로 석가·다보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

보살계본지범요기 필사본 2종 찾았다

시게마두 쇼우덴스님, 日 서교사서 발견

1283·1643년판 20여장…오탈자 적고 보관상태 양호

일본속 원효사상 재확인…경전 바른 해석에 도움



◇시게마두 쇼우덴스님.

원효스님의 계율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의 필사본 2종이 일본 서교사(西敎寺)에서 발견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히예산(比叡山) 대흥방(大興坊) 주지 시게마두 쇼우덴(茂松性典)스님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지난 3월말 일본 천태진성종본산인 서교사에서 1283년 사본과 1643년 사본 2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교과서 크기에 20여장의 분량으로 보관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필사본 끝장에는 "홍안6년에 히예산(比叡山) 서방원(西方阮) 운혜(雲惠)스님이 필사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 중 홍안6년본을 신수대장경본과 대조한 결과 서로 다른 글자가 30여군데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수대장경본보다 오자(誤字)나 탈자(脫字)가 없어 지금까지 뜻이 맞지 않았던 일부분의 명확한 뜻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게마두스님은 "이 필사본은 신라불교가 일본불교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효스님의 사상이 일본불교에 얼마나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원효스님의 저서는 총 80여부중 완본의 경우 13부뿐. 이중 '보살계본지범요기'는 6천4백여字의 간략한 저술이지만 현재 앞뒤가 갖추어진 완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써 원효스님의 보살계사상을 알게 해주는 독특한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8세기 중반경부터 일본에 유통되기 시작한 이래 1천년 이상 일본 불교에 꾸준히 영향을 미쳐온 '보살계본지범요기'는 지금까지 필사본으로 서대사장본(西大寺藏本)(1244), 동대사본(東大寺本)(1301) 등과 목판본으로는 高野山大學本(1686), 大谷大學藏本(1688) 등 모두 8종류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서대사장본에 이어 두번째로 빠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인사 사간장경(寺刊藏經)중 고려후기에 간행됐던 잔본(殘本)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체 9판중 제4판만이 남아있다.

김상현교수(교원대)는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원효스님의 저서는 4편에 불과하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원효의 대부분 저술은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이나 대일본속장경에 수록된 활자본에 토대한 것"이라며 "이번 필사본의 발견을 계기로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의 국내 원효저술의 서지학(書誌學)적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 시간관 '空' 사상 바탕

맨스필드교수 '현대물리학과 불교…' 서 주장

물리학 '카오스·생성·소멸' 관계 중시

4월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최근 인터넷에서는 과학과 불교를 비교한 논문 세 편이 나란히 전자출판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 논문은 물리학과 불교의 공통성을 지적한 에딩턴(멕시칸대, 미국)교수의 〈물리학 세계의 본질〉, 삼세(三世)의 한계를 부정한 흘리웰(캠브리지대, 영국)교수의 〈비대칭적인 시간의 기원〉 그리고 물리학적 사유가 불교의 깊은 이해를 돕는다고 주장한 맨스필드(콜게이트대, 미국)교수의 논문 〈현대 물리학과 불교에 있어 시간의 개념〉 등이다. 이중 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맨스필드 교수는 〈현대 물리학과 불교에 있어 시간의 개념〉(Time in Madhyamika Buddhism and Modern Physics)에서 "시간의 개념은 불교와 물리학에서 동일하게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 있어 시간은 아직까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물리학에 비해 불교의 발전을 뒤쳐지게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맨스필드 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시간은 각각 다른 개념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는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

시간은 대부분 과거·현재·미래로 구분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세(三世)로 일컫는다.

예전의 물리학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미래를 '비대칭적' 구조로 생각하고, 과거·미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불교는 과거·미래를 '대칭적'으로 분류하고 '바꿀 수 없는 성격'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물리학은 '카오스' '생성·소멸' 등의 이론의 도입으로 우주 광창설이 유력해졌다. 따라서 시간의 정의 또한 불교적 시점인 대칭적 개념으로 변했다는 것.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칭적 구조를 갖게된 시간 개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리학과 불교에서 '시간' 개념은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물리학의 경우 시간의 객체인 '카오스' '생성·소멸'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는 반면 불교는 '인과' '상호관계' '업' 등과 같은 시간의 객체를 통해 '空'사상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각 객체 간의 '관계'를 중시한 물리학과 다르게 불교는 단지 '空'사상만을 도출했기 때문에 우주가 지니고 있는 각 객체간의 유기적 관계보다는 찰라적인 '무상(無常)'을 이끌어 냈다는 것. 맨스필드 교수는 "시간에 대한 불교의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가능할 때, 물리학과 불교가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로 마무리 했다.

맨스필드 교수의 논문은 'http://www.lightlink.com/vic/time.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증욱 기자



◇동화사 대웅전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부처님의 존귀함 비할 바 없어라"

동화사

대웅전

天上天下無如佛
(천상천하무여불)
十方世界亦無比

(시방세계역무비)
世間所有我盡見
(세간소유아진견)
一切無有如佛者
(일체무유여불자)

하늘 위 아래 어디에도 부처님같이 존귀하신 분 안계시고 시방세계를 다 둘러 봐도 역시 비교될 만한 분 없도다.

세간에 있는 모든 것 다 보았어도 부처님 같이 존귀한 분은 일체 없어라.

해설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동화사는 493년에 극달이 창건한 신라고찰이다.

대웅전은 영조때 중건된 것으로 1606년에 학인이 건립한 것을 1677년에 상언이 중수하고 1727년에 천순 홍재 의회에 의해 다시 중수되었다. 현재 대구직할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돼 있다.

안에 모셔진 삼존불은 1728년에 왕준이 만든 것이며 후불탱화는 1620년에 의현이 그린 것을 후에 다시 고친 것이다. 천정의 극락조가 일품인 동화사 대웅전의 주련은 고성 염불의 한 구절을 옮겨다 놓은 것이다.

대웅전의 주련은 대개 부처님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우 평이한 내용이지만 부처님의 존귀함은 비할 것이 없다는 표현을 매우 방대하게 하고 있어 시원스럽다.

〈안동 경안중 교사〉

부산 만덕사지 복원 움직임

문화단체등 '성역화' 추진위 결성

민학회, 낙동향토문화원, 향토문화가꾸기모임 등 부산의 문화단체와 만덕사(주지 금산스님)는 최근 '만덕사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 성역화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시에 보건허가를 요청키로 했다.

지난 72년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학술적 고증을 거쳐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만덕사지는 통일신라 말~고려초 창건된 사찰로 국내에서는 희귀한 석축양식을 보유하고 있어 발굴복원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문화재 단신

日서 '동아시아 부처전' 금동불상등 9점 출품

오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이 개최하는 '동아시아 부처'展에 우리나라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호암미술관 소장)과 금동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 9점이 출품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중국의 불교·불화를 통해 불교의 일본전파과정을 살펴보고 일본 불교미술을 재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4개국의 불교미술품 1백50여점이 선보이게 된다.

용봉향로·사리감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5월26일까지 부여 능산리출토 금동용봉향로산향로와 백제창왕 명문사리감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백제불교문화의 흐름과 예술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두 유물의 실물전시외에도 향로에 나타난 각종 문양과 사리감의 명문을 집중 조명키 위해 보조자료 판넬 1백여점을 제작·전시한다.

서림리석불·3층 석탑 양양군서 문화재 신청

강원 양양군은 지난 6일 서면 서림리 현서분교장내 석불과 3층석탑을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에 신청했다.

석조 비로자나불상인 서림리 석불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철원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과 축조연대(865년)가 같은 시기로 추정되며, 3층석탑은 고려시대의 특징의 양식을 지니고 있어 강원도 고대 불교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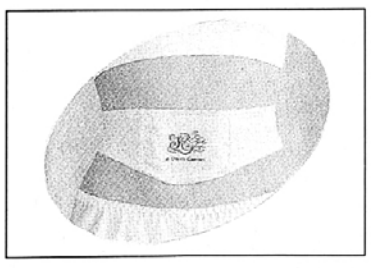
'한국의 고건축' 17호 나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최근 〈한국의 고건축〉 제17호와 〈일본소재문화재도록〉을 펴냈다.

〈한국의 고건축〉은 송광사 약사전, 영산전 등의 연혁과 건축양식 등이, 〈일본소재문화재도록〉에서는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고려동경 등이 도판과 함께 실려있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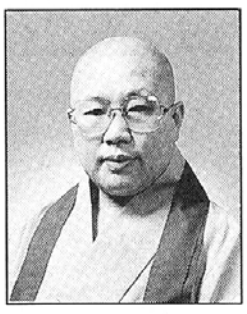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妙心스님 音樂活動 回向紀念



신체장애자 돕기
慈善 音樂會

출연진

· 메조소프라노 : 묘 심 ····· 금강선원 원장
· 테 너 : 조풍상 ····· 효성여대 조교수
· 소 프 라 노 : 권영희 ····· 제주대,군산대 출강
· 테 너 : 이춘기 ····· 제주대 음악과 교수
· 테 너 : 조영수 ····· 부산 예술대 교수

찬조출연 : (가수) 조영남
· 불교서정가곡의 매력에 심취되어 이 음악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 피 아 노 : 이희열

출연단체

· 청룡마야 합창단 : (지휘) 정옥녀
· 비로자나 합창단 : (지휘) 조영근

■일시 : 1996년 6월 5일 오후 7시
■장소 :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452 - 0002)
■주최 : 소리샘 예술기획 (596 - 7162)
■후원 :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음악연구원, 불광사마하보리합창단, 수국사합창단, 중앙합창단, 인천동암사합창단, 부산우담바라합창단, 부산삼광사합창단, 부산한마음선원합창단, 금강불교합창단, 청룡마야합창단, 부산불교연합회합창단
■협찬 : 불교여래원, 울산여성단체협의회

보르헤스의 ⑪ 불교강의

윤 회 ①

'해탈 우선' 붓다 독화살 비유로 일축

힌두경전·유대 신비주의·서양지성들 인정 경향

"윤회하는 생은 순차적인 꿈과 같고 침대를 옮겨 다니면서 자는 것과 같다" —— 플로티누스

"나는 남자로도 여자로도 태어났었고 나무였고 새였으며 물고기로도 살았다" —— 엠페도클레스

오늘날의 불교는 거대한 종교가 되어 방대한 경전과 주석 그리고 복잡한 이론을 구축한 학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래 붓다의 가르침은 해탈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매우 단순하고 실천적인 것이었다. 붓다는 추상적 토론의 무용(無用)함을 비유하기를, 인간이 화살을 몸에 맞았는데도, 그것을 뽑을 생각은 않고 그 상처의 원인만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붓다는 현학적인 토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화살 뽑는 시급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불렀다.

또한 붓다는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창조되었는지 아닌지 등을 물어오는 사람에게 대답대신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를 들었다. 우주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지고서 거대한 코끼리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유대교(구약)를 전제로 하듯이, 붓다의 가르침도 힌두교(베다)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힌두교는 윤회에 대한 믿음을 중요시한다. 현대인들에겐 다소 환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윤회설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서 인정되어온 것이다.

그리스에서 윤회설을 주창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였다. 디오게네스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자기의 전생(前生)을 기억해 내는 능력을 헤르메스(그리스 신화에서의 언어의 창조신. 제우스의 아들로 신과 인간사이의 통역을 맡음)로 부터 받았노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자신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던 헤르모티모였다고 말하며, 어느 신전에서 당시 전쟁에서 헤르모티모가 사용했던 방패를 찾아냈다. 고대 그리스 종교의 하나였던 오르페우스교(敎)에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가르쳤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그의 〈단편〉에서, "나는 남자도 되어 보았고, 여자도 되어 보았다. 나는 나무였고, 새였으며, 물속에서 고기로도 살아 보았다"고 기록했다. 특히 그는 물속에서 육지를 보고 매우 동경했으며, 육지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공화국〉 제10권에서 어느 상처받은 병사가 천국과 지옥을 순례하면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오르페우스의 영혼과 만났는데, 그 시(詩)와 음악의 신은 백조의 몸을 빌어 환생해 있었다 한다.

트로이 전쟁을 지휘했던 아르고스의 왕 아가메논은 독수리로 환생했고, 율리시즈는 평범한 무명씨(無名氏)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은 윤회의 주기를 천년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브라만신의 잠자는 시간인 일겁(一劫)의 천이백만년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스케일에 지나지 않는다. 3세기경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플로티누스는 "윤회하는 생들은 순차적인 꿈과 같은 것이다. 혹은 침대를 옮겨 다니면서 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시저는 영국과 프랑스 북부지방에서 살았던 고대(古代) 켈트족의 사제계급인 드루이다족의 연구에 몰두했는데, 이들은 영혼의 불멸과 윤회 전생(轉生)을 믿었다. 다음의 6세기경의 영국 시는 그 사상의 편린을 보여준다.

나는 칼날이었다
나는 강의 물방울이었다
나는 빛나는 별이었다
나는 책의 글자였다
나는 최초의 책이었다
나는 등불의 빛이었다
나는 물 위의 다리였다
나는 독수리처럼 여행하였다
나는 하프의 줄이었다
나는 마법에 걸려 일년동안 물거품속에 갇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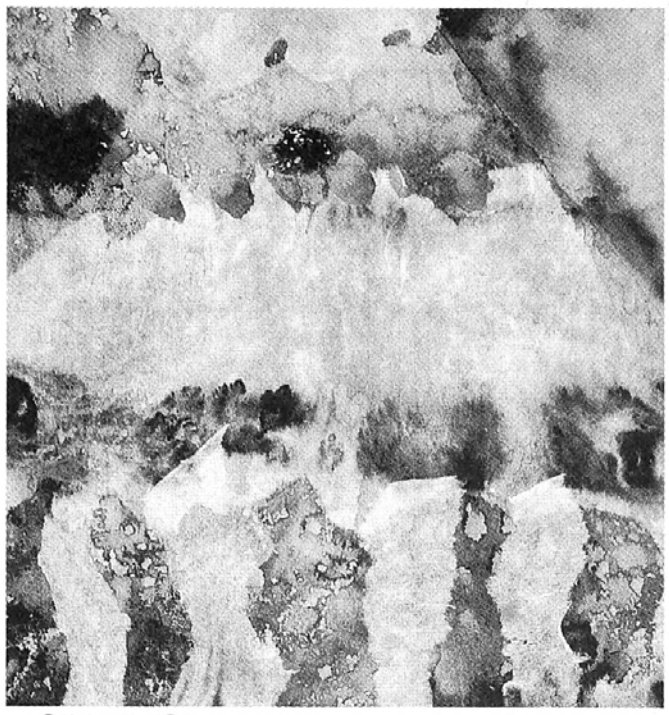
유대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윤회를 '길굴(Gilgul, 回歸)'과 '이부르(Ibbur, 回生)'로 구분한다. 길굴에 대해서 이삭 루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닌다. 폭포를 만나면 그 고통은 극에 달한다" 이부르는, 조상이나 스승의 영혼이 후손의 영혼에 스며들어가 그를 훈련시키고 기를 불어넣는 것을 가리킨다.

인도인들은 윤회를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마누법전에 이런 말이 있다. "승려를 살해한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 개, 돼지, 말, 낙타, 소, 염소, 양, 들짐승, 새 혹은 풀카자(카스트 계급의 최하위 천민)로 태어난다" 또, "비단옷을 훔친 사람은 머추리로, 아마포(亞麻布)를 훔친 사람은 개구리로, 무명옷을 훔친 사람은 백로로 태어난다. 향수를 훔친 사람은 새앙쥐로 태어나고 박하를 훔친 사람은 칠면조로, 익힌 곡식을 훔친 사람은 고슴도치로, 날곡식을 훔친 사람은 돼지로, 소를 훔친 사람은 악어로 태어난다. 불을 훔친 사람은 거위로, 집기를 훔친 사람은 꿀벌로, 붉은 옷을 훔친 사람은 붉은 굉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인간의 영혼이 다른 인간이나 동물 혹은 식물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은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호기심과 함께 영감을 불러 일으켰다. 볼테르는 윤회설에 대해 식이요법적인 가설을 세웠다. 브라만계급의 지도자들은 더운 인도에서 육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랍지방에서도 식중독과 기생충으로 인한 병을 방지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 볼테르는 소에 대한 숭배도, 인도에서는 고기보다 우유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윤회에 대한 믿음은 인도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도 매우 강했다. 사진은 손희옥교수의 평면화 '윤회'.



나의 수행일기

이 광 복 〈소설가〉



최근 아주 게을러졌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성가시기만 하다. 가까이 지내는 영화감독 한 분하고 천안 광덕산(일명 태화산)에 가자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게을러졌기 때문이다.

천안 광덕산은 연고가 꽤 깊은 산이다. 광덕산에는 저 유명한 광덕사가 있고, 그 일주문을 들어서면 바로 안양암이 나온다. 이 안양암은 비구니 스님들의 도량으로서 최근까지 불사를 계속해 왔다. 아마 지금도 불사가 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몇 해 전 봄이었다. 나는 광덕사 아래 한 민가에서 기식하며 세월을 축낸 적이 있었다. 집을 나설 때의 명분은 조용한 곳에 가서 장편소설을 쓴다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달포 이상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무위도식하는 꼴이 되었다. 딴에는 글을 써보겠노라고 열심히도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글은 나오지 않고 머릿속에는 엉뚱한 잡념들만 무수히 쏟아졌다. 그뿐 아니라 마냥 놀고 싶은 생각만 드는 것이었다.

글 쓰는 일은 바로 생업이 아닌가. 가장으로서, 생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일에 전념하지 못한 채 놀 생각만 했던 것이다.



생각이 다른 데로 기울면 일이란 애당초 글러버리게 마련 아닌가. 나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던 일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 다녔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들락거린 곳이 광덕사 경내와 안양암이었다. 광덕사 경내의 천불전 앞 다리목은 내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었다. 그 다리목에 앉아 주위의 숲과 산봉우리들을 일별할라치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 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안양암에 들르곤 했다. 안양암 주지스님과는 그 전에 인사를 드린 바 있어서 언제나 뵐 수 있는 이웃 어른인 양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허물없이 드나들 수가 있었다.

특히 안양암에는 기막힌 차가 있다. 그 차는, 어린 송순과 설탕을 버무려 땅속에 묻었다 내놓은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와 달리, 도리어 술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찻종으로 석 잔만 마시면 온몸이 얼큰해지는데, 그 맛이 천하일품인지라 안양암에 들를 때마다 그 차를 얻어 마시곤 하였다.

그리고나서 마을로 내려와 다방에 앉아 쉬고 있을라치면 십중팔구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마련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술판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한잔, 두잔…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 글이고 뭐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만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달포 이상 건달 생활을 했으니, 서울에 남겨 두고 온 가족들을 돌볼 겨를이 있었을 리 만무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 무렵에는 신선이 부럽지 않았다. 먹고, 놀고, 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우선 그들의 생활이 걱정되었다. 명색이 가장인 자가 그렇게 무위도식하면서 세월만 축내고 있었으니 자연 가족들의 생계가 궁금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불현듯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생활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깨를 짓눌러왔다. 그리하여 그 해 봄이 다가기 전에 보따리를 싸짊어지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별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이르러 급기야 발동이 걸려 일다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장편소설 4권을 포함하여 중편 2편, 단편 5편 등 막대한 양의 원고를 써냈다.

그리고 올해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작품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후 올해에 쓴 작품들에는 광덕산에서 지낼 때 보고 느꼈던 일들이 글 속에 용해되어 나왔다. 예컨대 3권짜리 장편소설 〈이혼시대〉는 물론, 올해 탈고한 장편소설 〈구름잡기〉를 비롯하여 단편 '먼길' '낯달' '산행'에 이르기까지 그 때의 산 체험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게으름을 피웠던 그 무렵에도 내 가슴 속에는 또다른 작품들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최근 또다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머리속에는 엉뚱한 잡념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잡념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봄이 가기 전에 꼭 광덕산에 다녀오리라 거듭 다짐하고 있다.

산사체험 작품에 그대로 녹여

"봄 가기전에 광덕산 찾아 잡념 씻어야겠다"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법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 書 專 門 出 版
大 興 企 劃
서울·중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炯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炯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炯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모집 완료 •통신 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0명 •야간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4월 26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 511-1080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5)

諸賢頌句 (제현송구) ②

鐵牛不怕獅子吼 恰似木人見花鳥
철우불파사자후 흡사목인견화조
木人本體自無情
목인본체자무정

쇠소는 사자의 으르렁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지라(마음에 잡시의 흔들림도 없으니 경계가 요란한들 미동도하지 않는지라) 흡사 나무사람(장승)이 꽃과 새를 보는것 같다(부동심·평상심이라)
나무사람의 본체엔 스스로 정과 식이 없으니(오온이 모두 공한 상태니)

花鳥逢人亦不警
화조봉인역불경
心境如如只恁是 何曾菩提道不成
심경여여지차시 하려보리도불성

화조가 이 사람을 만나도 또한 놀라지 않는다.
마음과 경계가 여여하여 단지 이와같으니 어찌 보리도를 성취 못함을 염려하겠는가

宏智禪師省病僧
굉지선사성병승

訪舊懷論實可像 經年獨秋涅槃堂
방구회론실가상 경년독와열반당

등산화상자계

不求名利不求榮 只願隨緣度此生
불구명리불구영 지마수연도차생

명예와 이곳을 구하지 말고 영화도 구하지 말라 단지 인연따라 이 생을 지남이로다

三寸氣消誰是主 百年身後謾虛名
삼촌기소수시주 백년신후만허명
衣裳破處重重補
의상파처중중보

세치 기운 사라지면(죽음을 말함) 누가 이 주인인가. 백년 수명 뒤에 부질없는 허명뿐이라
옷은 해진 곳 겹겹으로 깁고

"병든후 몸이 스스로 괴로움을 아나니
건강할 때 다른사람 위해 분주하여라"

(옛친구를 찾아가)옛일을 더듬어 심회를 논하매 실로 슬프다.
해를 거듭하도록 홀로 열반당(죽음을 앞둔 환자가 머무는 방·병든 스님을 치료하는 곳)에 누워 있으니

門無過客窓無紙 爐有寒灰席有霜
문무과객창무지 로유한회석유상
病後始知身自苦
병후시지신자고

문에는 지나는 이(그림자도)없고 창살엔 창호지 떨어졌으며 화로엔 불씨꺼져 싸늘한 재뿐, 자리(병석)엔 서리가 서렸도다
병든 후 비로소 몸이 스스로 괴로움을 아나니

健時多爲別人忙
건시다위별인망
老懃自有安禪法 八苦交煎總不妨
노승자유안한법 팔고교전총불방

건강할때 다른 사람위해 많이 분주하도다. 노승은 스스로 편안한 법 있으니 괄고가 서로 찌어도 도무지 방해롭지 않도다.

洞山和尙自誡

영지율사면주지 면학도

深嗟末法實悲傷 佛法無人得主張
심차말법실비상 불법무인득주장

심히슬프다. 말법이 실로 슬프도록 상했구나 불법이 이를 주장할 사람을 얻지 못함이로다.

未解讀文先坐講 不曾行脚便陞堂
미해독문선좌강 부증행각변승당
將錢請院如狂狗
장전토원여광구

경전의 묘의를 깨우치지 못하고서 먼저 강론석에 앉고 일찍이 행각하지않고도 곧 법당에 오르는구나
돈으로 절을 다스리려 하는 꼴이 마치 미친개 같고

空腹高心似啞羊
공복고심사아양
奉勸後賢休織此 免教地獄苦時長
봉권후현휴직차 면교지옥고시장

양식 떨어지면 두루 돌아 다니노라. 한낱 그림자 같은 몸 능히 몇날이나 되길래(얼마나 산다고) 저 한가 한 일 위하느라 무명만 길렀구나
靈芝律師勉住持 勉學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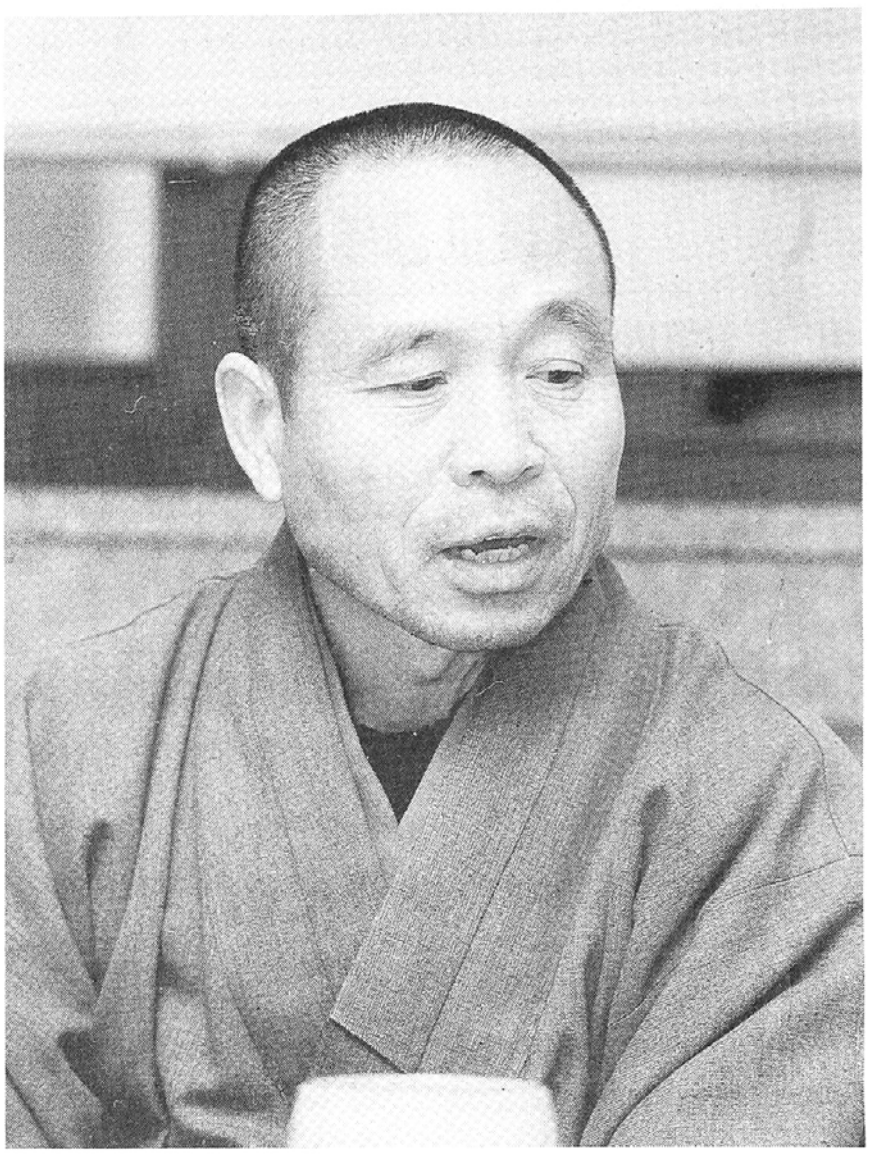
속에 든것도 없이 내노라 뽐내니 흡사 양의 울음소리 같도다
후연들에게 받들어 권하노니 이를 본받지 말라. 지옥의 길고긴 고통을 면하도록하라.

龍 眼

★ 지 상 법 석

"苦海 안전하게 건너려면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주지〉



악력
- 1938년 전남 장성 生
- 52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도원스님 은사로 득도
- 동국대 역경원 번역·증의 위원
- 삼일선원 선원장, 화엄학회 회주
- 강해서 〈대도직지〉〈구사론〉〈수능엄삼매경〉 등 역·저서 다수

원래 진리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 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말하기 이전에 그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말 이전에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근기에 따라 상근기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중근기는 말을 들어야만 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불교에 대한 여러가지 법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하근기는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중·하 세가지 근기를 총망라해서 누구나 다 깨달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한 것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먼저 계(戒)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계에서부터 10계, 보살 48계, 비구 250계, 비구니 500계 더 나아가 삼천위의 팔만대세행(三千威儀 八萬細行) 수많은 계법이 있지만 그것을 집약해서 말하면 계의 가장 근본은 오계·십선(五戒·十善)입니다. 오계·십선은 간단명료하고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깨닫는 방법을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오계·십선을 잘 이행하고 잘 지키고 닦음

"오계·십선 행함으로
누구나 깨달을수 있어요
극락이나 적멸락도
계의 공덕으로 가능해요"

으로써 여러가지 좋은 이익과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계(人間界)와 천상계(天上界)에서 부귀와 향락, 즉 가장 안락하고, 가장 쾌적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인천락(人天樂)을 성취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자재락(聖自在樂)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극락이나 적멸락(寂滅樂) 같은 것 까지도 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계의 공덕이 이루 말 할 수 없어서 율장(律藏)이나 다른 여러 경전에서도 계의 공덕을 많이 찬양 했습니다.
그러면 오계·십선은 어떠한 것이냐? 쉽게 말하면 착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가 착하고 평등하고 자유롭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를 차별대우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평등을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 감옥에 넣어 응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구속이 아니라 원래 자유해탈(自由解脫) 즉, 그 자리가 원활한 자리이기 때문에 구속을 싫어합니다. 또 인간의 본성은 착합니다.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악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지만 성악설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잘못된 외계의 관념이나, 외계의 오염을 받아 인간의 본질이 변해 물욕에 의해 정신이 흐려지고 양심이 말살되었을 때 악해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법률이나 교육, 도덕이 필요하다고 성악설을 주장 한 것입니다.
인간이 평등과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째 착한일을 해야 합니다. 지악작선(止惡作善), 나쁜일을 하지않고 착한일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착한일을 하라고 하지 나쁜일을 하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간혹 사이비 종교가 혹세무민하여 나쁜짓을 저지르는 과오가 있기야 하지만 원래 그 근본지침은 아닙니다. 원리원칙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규율이나 규칙 모든 것이 계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율은 한마디로 선입니다. 선을 실천하면 바로 계율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선일 수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양심 그대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선입니다.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염불하는 사람이 나쁜짓을 하면 극락도 못가고 도도 통하지 못합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에게 도를 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쁜짓을 하는 사람이 염불만 한다고 해서 극락에 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스님 말처럼 '부처님 전 상서'가 빗발치듯 나올 것입니다.
정(定)이라는 것은 본래 지극히 고요하고 빈자리인 마음을 찾는 것으로, 오염되고 잘못된 인습에 젖어있는 마음을 산란과 요동이 없도록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에 복잡한 잡념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그 도리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진리자체는 부동이기 때문에 만약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도리를 그 다음에 말한 것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 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두터운 불심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 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본 감로기획에서는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을 제작 보급합니다.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원효사
■ 크기 및 보금가 / 90cm×5m · 35,000원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도선사
■ 크기 및 보금가 / 90cm×6m · 40,000원

불기 2540년 5월 24일(음)사월 초파일
봉 부처님오신날 축
조계사
■ 크기 및 보금가 / 90cm×8m · 50,000원

※ 사암 연합회 단위의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주문을 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로기획 전화 : (02)723-4306 , 팩스 : (02)738-868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운거사의 등공양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200원
크기 / 신국판 × 64페이지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 라 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 금 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지상법석

'戒定慧' 배를 타십시오"

戒: 악을 멀리하고 善을 실천하려는 **攝心**

定: 마음 비우고 안정시켜 주인공 찾는 **觀心**

慧: 늘 깨어있는 고요하고 밝은 마음자리

이고, 정을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과 함께 본래 마음은 지극히 밝습니다. 고요하면서 밝고, 착하면서도 그 자리가 고요합니다. 그 본래의 밝은 마음 자리를 찾는 것이 혜입니다. 그래서 정과 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참선이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그 모든 수행방법이 전부 다 계·정·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과 혜를 함께 닦는 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 합니다. 즉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인 것을 사람의 근기가 다르고, 수행하는 사람이 모두를 다 총괄해서 제대로 수행할수 없기 때문에 교파, 선파, 염불파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분파가 된 것이지, 원래는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마음에서 성취한 자리가 선이고, 깨달은 그 마음에서 중생을 위해 말씀하신 그 법이 교입니다. 다시말해 깨달은 분의 그 깨달은 진리 자체가 선이고 그 법을 여러가지로 설명하신 것이 교로서 결국 선과 교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사람들은 둘로 봅니다. 둘로 보면 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주만유가 본래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있는 것으로 본다면 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정입니다.

마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허망이 없고 진실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여(眞如)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자리가 바로 진리의 본체로서 그것을 닦아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정과 혜입니다. 정과 혜로 그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과 혜를 닦는 것을 정혜쌍수라고 하고 정혜쌍수에서는 모든 것이 두가지로 집약되지만 결국에 두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은 정과 혜가 말로 설명하자면 두가지인데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정과 혜이고 동시에 정과 혜는 바로 일심이란 뜻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일언지하에 깨닫거나 말하기 전에 깨달은 사람은 상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계도 필요하지 않고 정도 필요하지 않고 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근기들은 그러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니까 계·정·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근기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고 계만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정·혜를 닦는 방법은, 깨달으면 깨달은 그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를 상실하지 않고 잊지 않으면 그대로 닦는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닦아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깨닫고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깨닫고 닦는데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정과 혜입니다. 정과 혜가 사실은 닦는 법이기 때문에 정과 혜를 닦아 보면 설령 깨닫지 못했다 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밝고 본래 고요하고,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은 자리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정과 혜로 개발하고 정과 혜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벌써 오염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세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요, 본래 순수한 자리요, 본래 그 자리가 부처의 마음 자리로서, 그렇게 될때 정과 혜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흐려 있으면 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밝고 청초하고 항상 깨어 있는 상태가 슬기로운 밝은 마음의 본성을 발휘하는 혜이고,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러가지 산란과 동요와 갈등과 잡념과 번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입니다. 본래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없고 그 자리가 본래 해탈입니다. 죽는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는 그것을 망각하고 몰랐기 때문에 사는 것의 위험을 느낄때는 공포심이 생기고, 죽음이 눈앞에 닥쳐 올때는 두려워 하거나, 싫어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죽고 사는 것이 없는 진리를 확연히 깨달았다면, 즉 마음이 정·혜가 되었다면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죽음을 싫어하거나 또는 사는 것에 대해 큰 애착을 갖거나 할 까닭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인간의 부조리는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들의 마음 씀씀이가 야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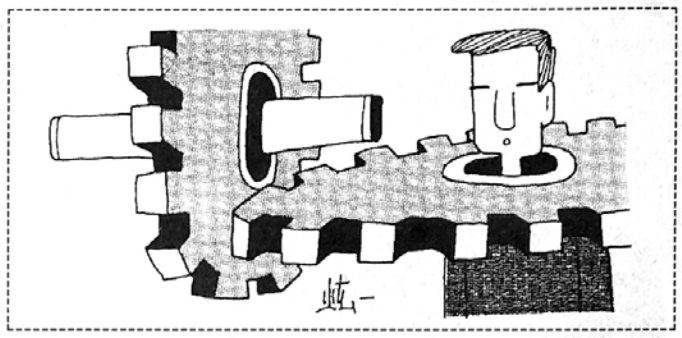
'계율이행'이 그대로 생활일때 자유·평등의 삶

마음흐리면 중생세계…생각 놓으면 부처자리

> "개와 사자에 돌을 던지면
> 개는 돌멩이를 물려고하고
> 사자는 돌을 던진사람을 물지요"

우리는 항상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들어야 합니다. 잠잘때나 잠깰때나 일을 할때나 누울때나 앉을때나 듣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들으면 다른 잡념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잡념이 들어왔다가도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그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이 혜가 되고, 아울러 듣는 마음을 듣고 있을때에 다른 외계의 잡념은 일시에 사라지게 되고 다른 잡념 갈등이 없어지니까 그 자체가 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과 어떤 규칙적인 생활 신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입니다. 가령 담배를 끊기 위해 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피우지 않더니 나중에 절에서 나와서는 도로 피웁니다. 그래서는 절에서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소리는 돌멩이와 같으니까 소리를 듣는 그 자체를 포착해서 공격해 버리면, 분석을 하던지 쪼개버리던지 해 버리면 그것이 생사타파(生死打破)입니다. 죽고사는것이 그로부터 생기니까요.

마음을 섭심하는 것이 계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정이고 마음을 통달하는 것이 혜로서,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정·혜가 결국은 중생의 현실에서 부처의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배가 없으면 바다를 건널 수 없듯이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은 것이 계·정·혜 삼학입니다. 사실 참선이나 염불이나 교나 주력이나 단전호흡 등 모든것이 전부 배(船)입니다. 부처님의 법의배는 완전무결한 대승선, 반야선이기 때문에 그 배를 타면 위험이 없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6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③

고전물리학의 우주론

결정론적 인과론 전제로 사물본질 분석

양자역학 탄생으로 기계론적 사고 붕괴

현대 물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흑백(黑白)이 분명한 아랍인의 논리가 서양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랍에 이런 얘기가 있다.

바그다드의 한 노예가 주인의 심부름으로 시내에 물건을 사러 가는 길에 죽음의 신을 만났다. 너무 놀란 나머지 노예는 심부름을 팽개치고 주인에게로 되돌아와 까닭을 말하였다. 노예의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했다. "신이 약속을 어기다니! 내 노예를 적어도 바그다드에서는 잡아가지 않기로 했는데 바그다드에서 너를 잡아가려고 하다니! 너는 지금 바로 사가랴로 떠나거라. 오늘 저녁 해질 무렵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꺼야." 말을 끝내고서 주인은 즉시 천상으로 올라가 죽음의 신을 만났다. 주인이 따지자 이번엔 신이 크게 외쳤다. "무슨 소리야 놀란 건 내 쪽이야. 나는 오늘 해가 지면 그를 사가랴에서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낮에 바그다드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삼라만상 모두가 결정론적 인과론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인도의 서쪽지방 사람들의 머리를 사로잡고 있었다. 칼빈(John Calvin)은 신의 구원마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고전물리학이 이 결정론적 인과율은 뒷바침해 주었다. 과거 5천년동안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고 물체의 운동을 관찰한 끝에 뉴턴에 의해 정리된 고전역학의 법칙은 아랍인식의 단순논리에 꼭 들어 맞았다.

물리학자들은 지난 19세기말까지 모든 자연현상이 뉴턴의 고전역학적 법칙을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았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고전역학이 자연현상을 너무나 잘 설명하였기에 라플라스(Laplacie)같은 학자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들의 속도와 위치를 어느 순간 알기만 하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말에 의심을 품는 학자는 없었다.

고전역학은 절대 시공간(絶對 視空間)의 존재를 전제로한다. 절대시공간이란 물질이 있건 없건 텅빈 시공간이 펼쳐져 있는 것을 뜻한다. 누가 측정해도 물체의 길이는 꼭 같고 시간의 길이도 꼭 같다. 이 시공간에 객관적 실체인 물질이 있어 인상적 경험세계에서 보는 물체와 별들을 이루는 것이다. 객관적 실체란 누가 보든 또는 보지 않든 거기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현대물리학이나 반야심경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점이다. 이렇게 객관적 실체를 인정하고 모든 물체는 뉴턴의 역학적 법칙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고전역학이 갖는 물질·우주관이다. 운동방정식의 답은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고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물체가 갖는 속도와 위치인데 속도와 위치는 원리적으로 한없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 물체의 운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에 관하여 모를 것이 없었다. 즉 우주는 거대하고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였다.

고전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실체와 허상, 유(有)와 무(無)등 이원론적이고 대립되는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허상에 불과하다거나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식의 발상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고전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선(善)과 악(惡) 신과 악마 물질과 정신은 모두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물질로 설명하려는 유물론의 등장도 필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이 탄생하기 이전 태초의 성운(星雲)속에 이미 셱스피어(William Shakespere)의 문학이 들어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그래야 옳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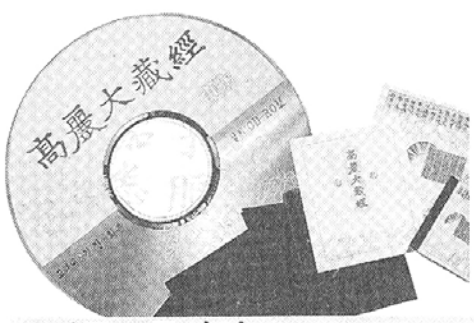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이던 이 기계론적 우주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였다. 빛의 속도는 누가 관측해도 일정하다는 사실이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을 낳게 하였고 입자-파동의 이중성(二重性)을 관찰하므로써 과학에 혁명을 가져오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이 탄생하게 된다.

양자역학을 통해서야 비로서 반야심경을 물리학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高麗大藏經 硏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Tripitaka Koreana



■ 영구보존사업

경판의 자연상태보존이 한계에 이르러 선조들의 정성에 현대과학의 힘을 가미하여 영구보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에는 영상화 작업과 보존대책수립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판과 판고에 대한 영상화작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경판 낱개별 화면처리로 필요에 따라 영상을 통해 원판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의 보존문제로 훈증소독 등 단편적 처방보다는 종합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태녕 박사를 팀장으로 하여 98년까지 보다 과학적인 심층진단을 실시한 뒤 완벽한 보존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般若波羅蜜多心經
唐三藏法師玄奘 譯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
色不異空空不異色色卽是空空卽
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
諸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
不減是故空中無色無受想行識無
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觸法無
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
明盡乃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
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故菩
提薩埵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
碍無罣碍故無有恐怖遠離顚倒夢
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
蜜多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
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
呪是無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
苦眞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揭帝揭帝 般羅揭帝 般羅僧揭
帝 菩提僧莎訶
般若波羅蜜多心經
戊戌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 대장경홍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팔만대장경의 진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계기로 우리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범 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장경 전산화 작업

팔만대장경이 컴퓨터 입력작업을 통해 CD-ROM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입력작업은 1994년초에 시작되어 2년여만에 총 5천2백80여만자에 이르는 본문이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 작업은 교정과 표점작업, 검색 프로그램 개발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산화로 대장경의 대중화 세계화의 길이 열리게 되며 학문연구에 활용함으로써 사상계의 영역확대 등 폭넓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 본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683 - 139

(하이텔, 천리안, 나우컴 ID:hederein)

고은 불교대하소설





73

막고굴 입실

"여기서 한경지 뛰어 넘자" 일행은 1080개 굴을 도량으로…

"강도 5백명이 부처를 이룬 막고굴 벽화를 여기 오기전 어느날 밤 꿈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도리의 얼굴에서 불이는 무욕도 도반 파현의 모습을…

다음날 새벽 먼동이 트기 전인데 도리는 각 천막 안의 사람들을 깨웠다. 딱딱한 전병과 말린 양고기 한 쪽 씩을 먹은 다음 모래산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정작 사람보다 낙타 쪽이 그런 비탈에서 당황하였다. 불이가 그런 낙타 몇마리를 이끌고 갈짓자로 내려가는 것을 본 다음에야 낙타를 말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내려갔다.

낙타를 말지 않았다면 단숨에 저 아래 월아천에까지 푸르르 내려갔을 것이다.

월아천 물가에 일행이 이르렀을 때에야 동쪽 모래산 위의 하늘에 붉은 기운의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그 어둠과 붉은 빛깔이 뒤섞인 기운은 마치 명치 끝이 수시는 통증과도 같았다.

월아천의 물로 얼굴을 씻었다. 각자의 물주머니에 그 물을 채웠다.

"갑시다."

라고 도리가 낙타에 올라탔다.

일행 중의 한 사람이 도리의 의도를 얼핏 짐작하고 그동안 확보해서 따로 낙타에 싣고 온 값비싼 장물(贓物)들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해서 물었다.

"그대로 가져갑시다. 쓰여질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월아천을 따라가며 아직도 간밤의 어둠에서 헤어날줄 모르는 삼위산 비탈의 그 결단과도 같은 먼동 무렵의 고요를 지나면서 막고굴에 다가들고 있었다.

"2천년의 세월을 한 몸에 품어야겠습니다."

라고 도리가 합두에게 속삭였다. 그것은 속삭임이라기보다 어떤 감격을 참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속삭였다.

"나는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오는 길이야말로 큰 길입니다."

"…"

"이 큰 사막이란 한 마디로 큰 갈입니다."

"정녕 그렇겠습니다. 도리어른!"

이라고 합두가 도리를 위로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대꾸를 하였다.

과연 그들 일행이 모래와 자갈이 어울려서 굳어진 파파한 땅을 한동안 걸어가자 거기에 영사산 끝부분의 낮으막한 모래산 아래로 어떤 전율(戰慄)을 불러일으키는 간담이 서늘한 긴 절벽의 굴들이 나타났다.

바야흐로 아침햇발이 그 일대를 집중적으로 비춰서 한층 더 적나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요!"

라고 도리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일행은 굴들을 바라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다.

도리가 말하였다.

"이곳이 막고굴입니다. 이곳에는 1천80개의 굴이 뚫려있습니다. 우리는 이 굴안에서 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떠나도 좋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막는 일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의 어느 누구도 이곳 굴안에 들어가 사는 일에도 아무런 확신이 없는 것처럼 이곳을 떠날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이다. 위글족 대원이 혼자 투덜거렸고 수염장이가 난감하다는 표정을 내비친 것말고는 아무도 떠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도리의 지도력에 순응하거나 이 막고굴의 삶에 귀의한다고 여길 수 없었다. 이곳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 떠날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뿐 아니라 20명 미만의 그들 가운데서 돈황이나 이곳 막고굴 일대에 익숙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어디로 떠나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길이 없는 셈이다.

도리가 사막을 큰 길이라고 말했지만 그 길은 바로 방황의 길일 수 밖에 없다.

수염장이가 혼자 중얼거렸다.

"…동서남북이라도 짐작할 때까지 여기서 노닥거릴 수 밖에…"

그러자 열의 사나이가 수염장이에게 한마디 알려주었다.

"이곳은 바로 중노릇이나 하는 곳이라더군. 저 굴 하나씩 차지하고 살켓 주력(呪力)에나 몰두하다가 이 마겁질이 벗겨질 신세란 말이지."

"재기럽… 나는 도무지 천축의 석가씨가 마음에 안들어."

"…"

"왜 산 목숨을 늙 않아있게 한단 말이야?"

그들은 다른 사람이 들을지도 모른다고 여겼는지 더이상 말을 나누지 않았다.

도리가 대원들, 아니 사람들 하나 하나를 살펴보았다.

"이 막고굴 도량은 누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막고굴에는 강도 5백명이 열심히 공부하여 부처를 이룬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벽화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떨거지가 만들어진 뒤의 어느날 밤 꿈에 바로 이 막고굴 벽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곳 막고굴의 하나를 여기에 오기 전에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 기억 가운데는 어린 시절에 한번 온 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도리의 부푹 산만해진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만화 합두 불이야말로 도리가 그들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특히 불이는 도리가 전생의 누구일까? 화살에 맞은 사슴처럼 어떤 통증이 생기면서 의문을 일으켰다.

"누구였을까?"

그는 의문을 더하였다.

"누구일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이어가다가 불현듯 전생 무욕도시절의 도반 파현의 모습을 아슴프레 떠올렸다.

파현이라면 난파선에서 구조되었던 무전과 함께 바다에서 살았던 사공이 아닌가. 그 파현은 그 뒤로 어떤 행로로 세상의 문화에 몸을 내맡겼던가. 아니, 어떤 세월을 보내며 이제 이 청나라 변방의 임자 없는 사막에서 강도집단에 끼어들었단 말인가.

그런 전생이나 과거분 아니라 그 전생과 과거로 말미암아 미래와 내생까지도 새삼 캄캄해지는 것을 실감한 불이는 합두에게 가만히 물어보았다.

"저분… 어딘지 낯익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인연이라면 누구 하나 낯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분… 혹시 가까운 전생에서 우리와 함께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무래도 바다냄새가 나는 것이… 이 사막도 모래의 바다이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때 불이가 몹시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 정녕 그래요. 무욕도시절일 것입니다."

"무욕도! 그렇겠습니다. 그때도 도반이 겠습니다."

"아 합두님과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두사람의 이같은 합의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도리가 사람들을 짝을 짓거나 혼자가 되게하거나 해서 각자가 살 굴을 지정해 주는 일에 서둘렀기 때문이다.

돈황 막고굴은 언제부터 이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이 세상의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저 곤륜산맥을 넘어 천축에서 열친 진리가 목숨을 건 구도승과 전도승들을 통해서 한족의 세상에 새로운 진리로 뿌리내리는 일과 함께 이루어진 사실이다.

뒷날의 사람들은 그 거대한 사업의 시작을 전진(前秦)시대로 말하고 있다.

이 시대는 바로 중국사상이 여기저기서 떨치기 시작하는 제자(諸子)의 무대이기도 하거니와 이런 중국 한복판의 창조적인 사상들에 대한 하나의 화답으로써 서역 사막의 막고굴이 하나하나 뚫리기 시작한 것인가.

"너희들을 환영하노라. 여기 굴을 뚫어 그 안에 지극한 가르침을 아로새긴 어둠 속에서 온세상을 밝히는 지혜를 터득하리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굴속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었던 것인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구도승 나준(樂尊)이 바구 율부짖어대는 모랫바람의 이곳에서 뜻밖의 서광이 비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한 줄기 파란 서광을 만난 구도승으로서는 그가 이른 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일행을 구도여행의 먼길을 단념시킨 뒤 우선 그 일대의 여러 오아시스국가의 왕을 설득하여 의식(衣食)을 대게한 뒤 명사산 기슭을 잘라낸 단면의 절벽에 굴을 파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명사산의 사정은 왕모래가 진흙과 섞여 다져진 역암(礫岩)이므로 불상을 새길 수도 없고 거기에 바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벽면에 흙을 발라 거기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월아천 강바닥에서 채취한 흙을 이겨 불상을 만들 수 있었다.

흙으로 만든다 해도 그저 흙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나무골재에 풀로 곤 새끼로 동여매고 강바닥의 찰진 흙을 삼베나 모래등과 섞어 아슬아슬하게 형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거기에 백토를 발라 마감한 뒤에 색채나 금박을 입혔을 때 그것이 돈황 채소(菜塑)의 거의 아무도 모르는 대향연을 성취한 것이다.

도리는 만화와 불이 합두에게 북대굴(北大窟)의 커다란 방을 배당하였다. 그 방안에는 몇개의 승방이 독립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웅장하였다. 도리가 처음에 하던 말을 바꾸어 말하였다. 어떤 것이 거지 말인가.

"이 방은 본존불도 장엄하지만 벽의 변상도(變相圖)가 더욱 다채로운 방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 숙부를 따라 이곳 막고굴을 참배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곳에서 한 경지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당신들과 함께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세사람은 도리의 배려로 좋은 방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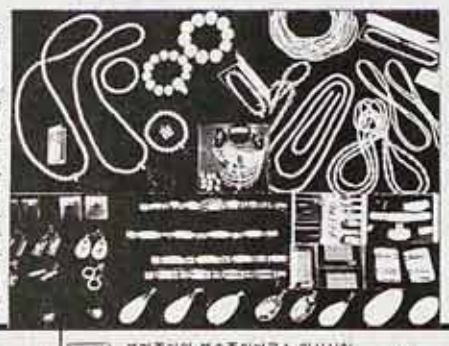
하지만 도리는 그의 전생이 무욕도의 파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불이는 합두에게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눈짓을 하였다. 그런데 합두는 굳이 그런 일이나 일삼는 것이 편한 한가한 노릇이 아니냐는 듯이 그다지 호응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합두가 북대굴 안장에 있는 승방을 그녀 자신의 거처로 삼았는지 그 방안으로 들어갔다. 전실(前室)과 본실(本室) 그리고 연도(羨道)에는 온통 채색그림이었다.

그림 · 조향숙

그 마음을 바꿔라/신국판 267쪽/값7,500원
김재웅 법사의 세 번째 책 출간!
그 마음을 바꿔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백 선생님 법문에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법사의 첫 번째 책 신국판 267쪽/값3,800원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걸음 한걸음 디디는 모든 길 가는 이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김재웅 법사의 두번째 책 신국판 272쪽/값4,000원



순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자유자재로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배와 기도에도 좋습니다. 부담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본사는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일보 책을신는날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현 대 불 교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장애인은 절에 갈 수 없나요"

사찰 경사로·미끄럼 방지턱 등 편의시설 태부족

4월 장애인의 달

단지 몸이 좀 불편할 뿐인 장애인들도 사찰과 포교당을 찾아 신행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백1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가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의한 후천성 장애를 겪고 있다.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장애인도 엄연한 일불제자(一佛弟子).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사찰시설로는 최소한의 신행생활조차 하기 힘들다. 경사로 및 장애인전용 화장실,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저도 예전에는 두 발로 법당을, 사찰을 오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혼자 부처님을 뵈러 절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사찰의 계단을, 법당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해 3중 추돌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수유리 고성희보살(34).

고씨가 토로하는 이같은 애로점은 고씨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이 사찰이나 포교당을 찾을 때면 으레히 겪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각 또한 부정적이어서 사찰을 찾는 장애인들의 가슴을 때때로 아프게도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자비와 평등을 배우며 실현하는 불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법당을 찾는 장애인들을 때로는 혐오스러워 하기도 하니 불자들의 의식은 오히려 뒤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찰을 찾고자 하는 저 같은 불자장애인들의 눈에는 불교가 '장애인들은 죄인 취급하는 종교'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고 한마음장애인회 김완석씨(소아마비)는 말한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 종교를 원하는 비율은 83.3%에 다다른다. 실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79.5%나 돼 일반인들의 종교생활 46.3%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런데 종교 유형별 분포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불교가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 장애인들은 사찰 및 포교당을 언제나 부담없이 드나들며 신행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전통 사찰 개보수 제약

장애인 종교생활 "불교 4.8%"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며 그들의 편의와 신행생활을 위해 장애인 포교불사에 원을 세운 선진스님은 "장애를 업으로 해석하는 일부의 그릇된 장애인관과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사로, 화장실, 미끄럼 방지턱 등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배려가 인색한 스님들의 의식부족 탓이죠"라며 불교계의 복지현실을 지적한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교당 및 사찰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오는 20일 총무원 청사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또 총무원은 종단 산하 사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계는 이를 계기로 사찰 및 포교당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전통사찰 및 문화재 지정 사찰, 도심 빌딩 속의 포교당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임대 시설이라 임의로 개보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름살 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깊은 시름을 주의깊게 배려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사업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필선 기자



랑승만씨 (시인)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위해 사는 삶

그가 최근 절망에 빠져 있는 장애자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두번째 서화전을 마련, 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몸기 및 장애인법당 건립기금 마련 바라밀 시서화전'을 이날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 중앙문화센터(744-4412)에서 개최하기 때문이다.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훈훈한 세상만들기를 위해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전국을 다니는 그는 요즈음 장애인들이 법당가득 모여 기도정진하는 꿈을 꾸곤 한다.

"그때그때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을 뿐 장애인들에게 참된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라며 "장애인들을 위한 법당을 꼭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두번 울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

장애문인 키우며 법당마련 '꿈'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내뱉는 주위사람들의 한마디로 인해 밤이 새도록 생사의 벽을 수만번 넘나들고 눈물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장애인들.

반신불수의 몸으로 16년 동안 좌절과 생활고 속에서도 원고료를 톡톡 털어 장애문인 굶나무들을 격려해왔다. 문집을 내고 등단을 도모하고 의약품을 보시하는것을 낙으로 삼아온 시인 랑승만씨(63).



윤병조씨 (택시 기사)

쉬는날마다 '부름의 전화' 봉사

"남을 도우면 나도 기쁘니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없이 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온 택시운전기사 윤병조씨(33). 후천성 루마치스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윤씨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택시회사를 다니며 3년 동안을 비번날이면 장애인들을 위해 관공서, 병원을 가리지 않고 보살행을 펼쳐온 숨은 일꾼이다.

윤씨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자신의 유일한 '취미활동'이라고 말한다. 봉사활동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남들 앞에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는 윤씨의 겸손하고 소박한 마음인 것이다. TV를 통해 인연이된 부름의 전화에서 요청하는 일이면 밤낮없이 장애인들의 손발이기를 자처하는 윤씨. "관공서에 볼일이 있어 도움을 요청한 한 여자 맹인이 자신을 보살펴 주는 제가 고마웠던지 저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대뜸 제 다리를 더듬더듬대는 바람에 황당한 일을 겪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많았다"는 그는 장애인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자신의 지친 몸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고 귀띔한다.

"장애인은 운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느날 갑자기 장애라는 몹쓸 놈이 찾아왔을 뿐, 여러분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 지적한다. 〈선〉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올바름의 장 *

번뇌가 다 끊어지기 전에는...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소식
• 지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심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일할곳을 찾습니다
30대 중반의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로서 처사할 일할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 사찰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찰은 지급한 보시로 봉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전화 (0351) 41-1152 박성훈
■ 주간에 전화 받지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연꽃 잉어화 기타(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파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버락 맞은 대추나무(도장, 부적재료) 진품 식별법 및 진품 공개!!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슁글
전화 (053) 742 - 7855
015-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대원사
경기도 용인군 수자면 성복리 393-1
T. 0331-281-0606 F. 0331-262-157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법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다산(진관사) 대웅전 수미단 용각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전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道貴王 합장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공해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체질적 특징 · 기아 · 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열분 · 자연탕 ·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염불삼매수련 · 선근삼매수련 · 연년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받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심선원
안내 ☎(0593)34-1115-6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테입제도등)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점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많이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과학은 물질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현대물리학과 불교 유사성 다룬책들 '눈길'

21일 과학의 날

"물리학은 '질량을 갖지 않는 입자를 생각하라' 등과 같은 공안(公案)으로 가득차 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게리 쥬커브가 〈춤추는 물리〉(범양사 刊)에서 한 말이다.

90년대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조심스럽게 다룬 이같은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불교의 과학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책들은 똑같은 복잡한 구조를 포함한다는 것)구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즉 〈관무량수경〉 등의 내용과 현대물리학의 성과인 관측량들의 비교를 통해 거시우주와 미시우주의 동일성이 10^{80}의 비례상수를 통해 나타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결국 저자는 우주의 모습은 그 크기에 있어 10^{80}의 비례상수를 매개로 위로도 밑으로도 연속적이고 무한히 중첩된다는 '무한 중첩·연속 우주론'이라는 새로운 우주론을 제시하고 있다.

〈카오스와 문명〉은 최근에 등장한 카오스이론과 화엄사상의 유사성을 부분적으로 다룬 과학철학서다. 저자인 김상일교수(한신대)는 현대 문명의 엉킴을 푸는 지혜를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에서 찾고 있다. 김교수는 화엄불교가 이미 카오스(Chaos: 자연현상은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非線形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전체성의 과학)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다고 전제하고, 연기론(緣起論)을 로렌츠박사의 '나비효과(북경 하늘의 나비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이 대서양의 태풍 진로를 바꿀 수 있다는 현상)'에 대비시키고 있다.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는 양자물리학이 보여주는 주관(마음)과 객관(물질)의 상호관계를 통한 우주적 질서를 보여준다. 저자인 프레드 A. 울프는 "우주의 질서는 물질세계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실재(實在)는 관측, 또는 관측에 참여하고 있는 의식(意識)에 의해 창조된다"는 불교적 유심론을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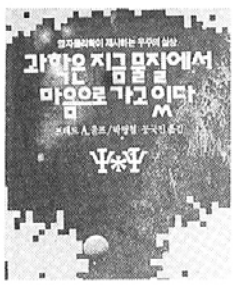
현대물리학과 불교와의 인식론·우주론적 유사성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하지만, 현대물리학이 불교적인 사유를 통해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시공을 초월한 불법(佛法)의 진리성을 드러내 주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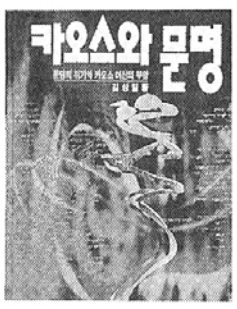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현대물리학과 불교관련 책들

도 서 명	저 · 역 자	발 행 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F. 카프라/이성범 · 김용정	범양사
과학과 불교의 신비	A. 사또꼬/김인재	고려원
불교적 깨달음과 과학적 깨달음	김성규	과학과 사상
현대물리학과 신비주의	K. 윌버/박병철 · 공국진	고려원미디어
동양적 사고로 돌아오는 현대과학	이시카와 미츠오	인간사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	앨런 윌리스/홍동선	범양사
현대물리학과 한국철학	김상일	고려원
신과학 산책	김재희 엮음	김영사
카오스와 문명	김상일	동아출판사
티끌 속의 무한 우주	정윤표	사계절
윤회의 법칙	김성규	큰 산
과학자가 본 불교의 세계	윤주억	밀 알







'연속 우주론' '카오스이론' 근원은 불교적 사고

현대과학이론 화엄·유식사상과 공통성 보여

중국불교 확립기 남북조시대 '분석'

'중국불교사' 제3권 발간

도서출판 장승(대표 김병무)이 본격적인 중국불교 통사(通史)인 〈중국불교사〉(전 8권) 제3권으로 〈남북조의 불교(上)〉(카마타 시게오 저·장휘옥 역)를 발간했다.

〈초전기(初傳期)의 불교〉 〈수용기의 불교〉에 이어 나온 〈중국불교사〉 제3권은 한역불전의 본격적인 연구로 중국불교사에서 인도불교를 탈피해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가 확립되기 시작한 남북조시대의 불교를 다루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제5권 〈수당의 불교〉까지 나온 동경대 카마타교수의 〈중국불교사〉 시리즈는 교리사나 교단사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문화를 통한 불교의 중국적인 변용과 수용, 영향 등을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서술해 중국불교사 전체를 조감하게 한다.











새로나온 책

▲금강경대강좌(청담스님 설법)=지난 77년 발간돼 꾸준한 인기를 끈 청담스님의 〈금강경〉 설법집의 개정판. 청담스님은 생전에 〈금강경〉을 "금강불괴(金剛不壞)의 구경지(究竟智)를 꺼닫게 하는 성불작조(成佛作祖: 부처와 조사가 되는)의 비전(祕典)"이라고 설했다. 〈보성문화사 2만원〉

▲깨달음의 바다에 낚싯바늘 드리우고(이창호 저)=깨달음의 길을 향해 떠나는 초심자를 위한 수행의 모든 것을 체험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깨달음을 향한 발심과 도전, 수행법들의 과학적인 고찰, 실제적인 수행과정의 기술, 깨달은 경지와 득도(得道)후의 수행법 등을 설명. 〈가교 7천5백원〉

▲나는 노새의 똥이로다(진동일 엮음)=불교우화 226편을 그림과 함께 엮었다. 불교우화와 禪의 만남을 부제로 한 이 책은 어리석은 자의 항변, 육조제자들의 우화, 현대판 스님과 제자의 우화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백양 6천5백원〉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레오 호우·알란 웨인 엮음)=영국 케임브리지대가 매년 세계 석학들을 초청해 여는 〈다윈 콜리지 강좌〉 중 '예측'을 주제로 한 강연을 묶었다. 리처드 곰브리치교수(옥스포드大)의 '불교에서의 미래', 스티븐 호킹(케임브리지大)의 '우주의 미래' 등 종교학, 물리학, 경제학 등 제과학의 미래전망을 실었다. 〈민음사 7천5백원〉

▲마음을 깨우치는 법구경(진동일 엮음)=가장 많이 번역된 불교경전이며 불교를 믿지 않는 지식인들 사이에도 많이 읽히고 있는 〈법구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절구절마다 삽화를 넣고 낱말풀이를 걸들였다. 〈백양 8천원〉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백선' 쉽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 진 태	해 냄
2	기도	일 타	효 림
3	능엄경 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4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5	삶에서 깨어나기	틱 냑 한	장 경 각
6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7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업보	혜 범	밀 알
9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10	달마에서 경허까지	박 영 규	정신세계사

구입문의:(02)737-0695

과학자들이 말하는 '불교와 과학'

21세기 첨단과학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과학의 위력 앞에 무기력해 지고 있는 반면, 불교는 현대과학의 성과에 영향을 주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자들이 보는 '불교와 과학'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물은 근본적 주체 갖고있지 않아



프리초프 카프라 (美 물리학자)

나는 양자이론(量子理論)의 불가사의를 연상시키는 禪의 불가사의함에 이끌려 들었다. 특히 〈화엄경〉의 중심 주제는 모든 사물과 물건의 통일과 상호작용으로서 이 개념은 동양적 세계관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현대물리학에 나타나는 세계관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기도 한다. 물리학자의 아(亞)원자적 세계와 같이 동양 신비가들의 현상적인 세계는 끝없이 이어지는 탄생과 죽음, 곧 윤회의 세계이다.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허(虛)의 순간적인 현현이므로 아무런 근본적인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화엄사상 현대수학 무한개념 상통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수학)

불교는 현대수학과 발상면에서 많은 교차점을 갖는다. 그 이유로는 불교의 세계관, 특히 존재론적인 사고 속에 내재하는 공간관, 시간관이 현대과학의 그것과 일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엄경〉은 보리심을 발할 때 영원한 시간이 순간에 수렴하고 한순간이 '영원한 시간(무한)'을 내포한다고 한다. 수학에 있어서 무한은 '일부분이 전체와 맞먹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일즉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세계다. 이처럼 〈화엄경〉의 사상은 현대수학에서의 무한의 논리와 일치하고 있다.

카오스이론 의상대사 '법계도' 일치



김상일 (한신대 교수 · 과학철학)

화엄불교는 이미 카오스이론의 근본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현대과학의 카오스이론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다. 〈법계도〉속을 들여다 보면 소용돌이가 속으로 잠겨들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결국 곡선궤도는 출발점과 같은 장소·위치로 되돌아와 끝난다. 이 중심점은 '法'자로 시작해 '佛'자로 끝난다. 처음과 끝이고 중심점인 이 두 글자는 영원히 루프를 그리는 대신에 궤도는 안쪽을 향해 나선형으로 감겨든다. 이를 카오스에서는 끌개(attractor)라고 한다.

서구과학문명 동양정신으로 승화



양형진 (고려대 교수 · 물리학)

불교의 세계관은 과거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와는 달리 현대과학의 제성과와 놀라운 정합성(整合性)을 지니고 있으며, 불교는 서구 문명이 제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비관을 과학문명에 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양의 위대한 정신적 문화유산인 불교와 서양의 과학문명을 융합시킨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 작업은 불교적 가치관으로 서구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서구에 진 과학문명의 빚을 동양이 정신으로 갚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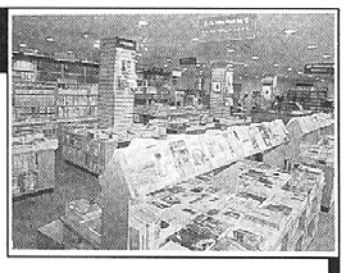
한 티끌(원자)에 무량우주구조 담겨



박영재 (서강대 교수 · 물리학)

〈의상대사법성게〉에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이란 귀절이 있는데, 여기서 단적으로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의 관계처럼 불교와 현대과학과의 상호관계를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티끌에 해당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나 분자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태양에 해당하는 원자핵 둘레에 행성에 해당하는 많은 전자들이 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티끌에 무량우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한 티끌 자체가 무량우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와 현대물리학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불은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 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

봉축문화행사 다채 '국민축제'

음악·미술·연극·사진등 '함께하는 봉축'
전통불교 그림자극 '만석승 놀이' 재현
환경 미술전시등 부처님 오신 뜻 고취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화려하게 펼쳐질 갖가지 행사들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통종교로서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한층 각별히 새기기 위한 음악 미술 연극 백일장 등 관련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이번 봉축행사에는 불교문화의 각 분야별로 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점검해 보는 '불교문화세미나' 전통불교그림자극의 재현인 '만석승 놀이', 날로 황폐해 가는 환경의 중요성과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환경미술제 '생명의 근원전', 어린이 전문극단 동쪽나라가 공연하는 연극 '선덕여왕' 등과 불국사에서 열리는 KBS TV '열린음악회' 등이 눈길을 끈다.

불교문화 세미나 우리문화의 근간을 이뤄왔지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불교문화의 현황은 어떠한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자리. 미술(5월20일) 문학(5월21일) 음악(5월 22일) 문화재(5월23일) 등의 주제로 나흘간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각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게된다.

'생명의 근원'전 전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를 경고하고 부처님께서 제시한 연기세계의 상호관계구조를 통찰, 건강한 민족문화창달과 대승적 차원의 문화활동을 펴나가자는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환불연)의 환경관련 미술전. 5월10일부터 28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강행원 박찬갑 두시영 김영만씨 등 16인의 미술가가 '숨쉬는 땅' '자연송' '지리산' 등 환경관련 한국화 서양화 판화 조각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만석승놀이 만석승이라는 나무인형과 연등 십장생 용 잉어가 등장하는 그림자극으로 고려시대때 전성기를 구가했던 불교전통극. 1920년대까지만해도 초파일무렵 마을과 사찰에서 공연되었다. 그동안 맥이 끊겼다가 최근 민속학자 심우성씨에 의해 재현됐다. 대사없이 인형그림자로만 극이 진행되고 범패와 사물소리가 배경으로 나온다. 막이 오르면 범종소리에 맞춰 연등행렬이 지나간후 십장생이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가 사라지고 천년묵은 용과 잉어가 나타나 여의주를 놓고 다툴 때 한 승려가 나타나 어항속의 물고기가 노니는 것처럼 삶이란 좁고도 구상하다는 의미의 '운심게작법' 춤을 춘다. 용 잉어도 사라지고 스님은 바라춤을 통해 깨달음을 관중에게 전하며 막이 내린다.

아동극 '선덕여왕' 어린이극단 동쪽나라의 제4회 정기공연인 '선덕여왕'은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던 신라시대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 남다른 불심으로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선덕여왕과 화랑들의 참다운 용맹, 민족의식 등을 어린이들이 열연한다. 외국동화에 길들여진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옛문화에 대한 성찰과 순수한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볼수 있다.

이경숙 기자



◇70여년간 맥이 끊겼던 불교전통그림자극 '만석승놀이'가 재현된다.



◇환경을 주제로 한 미술전 '생명의 근원전'에 나올 강행원作 '근원의 위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문화행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관처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관처
칠보사 합창발표회	4.17 오후7시	연강홀	칠보사	아동극 '선덕여왕'	5.11~5.12	동숭아트센터	동쪽나라
장애불자 시낭송회	4.20 오후4시	조계사 대웅전	조계종 문사부	부모은중경송	5.11~5.12 오후4시	국립극장	불광법회
이철수 판화전	4.24~5.8	서남미술관	불교방송	시낭송회	5.12 오후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문학회
북한불교 사진전	4.26~5.9	경불협 강당	경불협	청소년문화축제	5.12 오후2시	역도경기장	조계종 포교원
소년소녀가장돕기 불교음악회	4.28 오후2시	공주문화예술회관	한마음선원 공주지원	원효문예대전	5.16~5.17	경주시	분황사
				은이상불교음악회	5.17 오후5시	동국대 풍상앞	동국대
연꽃노래잔치	4.28 오후1시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청	합창발표회	5.18 오후7:30	KBS홀	경국사
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5.5 오후4시	국립소극장	불교교육연구원	사랑의편지 쓰기	5.18 오후3시	월곡청소년센터	월곡청소년센터
				신작찬불가요제	5.19	부산사직실내체육관	부산불교연합회
어린이백일장	5.5	부산시	불교어린이지도자연	봉축꽃꽂이전	5.19~5.21	봉은사	연화꽃꽂이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5.5	목아불교박물관	월간 '불광'	가족찬불가경연대회	5.20 오후4시	대구고려예스장	대구광역시 신도회
				불교문화세미나	5.20~5.23	조계사 문화교육관	조계종 문사부
봉축음악제	5.8 오후7시	KBS홀	봉은사	만석승놀이	5.23 오후7시	조계사	우리마당·조계사청년회
칠보문화제	5.8~5.10	대구광역시 칠보사	조계종 칠보사	불교문화대제전	5.23~6.1	여의도광장	불교TV
생명의 근원전	5.10~5.28	서남미술관	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	열린음악회	5.26 TV방영	불국사	KBS

불심시심 〈50〉

바람따라 가는 구름

風來雲逐來 (풍래운축래)	오는 바람에 구름 따라 오고
風去雲隨去 (풍거운수거)	바람 가면 구름도 따라 가지
雲從風去來 (운종풍거래)	구름은 바람따라 오간다지만
風息雲何處 (풍식운하처)	바람 자면 구름 어디에 있죠

위 시는 월저(月渚)대사의 시이다. 월저대사는 편양(鞭羊)대사의 법손이고 풍담(楓潭)대사의 제자이다. 흔히 스님들의 생활을 운수행각이라 한다. 구름 가듯이 물 흐르듯이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자재로움을 비유적으로 일컬음에서 유래된 말일 것이다.

이 시는 이런 스님의 걸음을 표현했다 할 것이다. 바람과 구름이라는 단순한 소재로 오고 간다는 규칙적 동작을 연결시키면서 어디에도 매임이 없는 무주착의 높은 선기(禪機)를 보인다.

바람이 불면 구름도 따라오고 바람이 가면 구름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참 모습이다. 그러하나 사람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애를 쓴다. 지나친 의미를 강조하려는 그 자체가 사사물물에 매달리려는 욕심이 아니겠는가. 이 욕심을 여의는 일이 바로 무주착의 일상의 초탈이 아닐까. 오고 감에 자유로운 저 구름을 스님을 발자취의 전형으로 삼았음을 이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는 당시 참의를 지낸 권중경(權重經)이라는 이가 보낸 시에 대한 답시이다.

借自白雲來
구름따라 왔던 스님
還向白雲去
구름 보며 돌아가네
白雲無定去
정처없는 것이 구름이니
明日又何處
내일은 어느 곳에 있나요

보내온 시가 스님들의 운수행각을 아무 부담없이 말한 것 같지만, 되짚어 보면 일정한 곳이 없는 스님들의 행각을 조소나 야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답하는 스님의 시는 그저 담담하다. 구름이나 바람이 자연의 한 호흡이듯이 인생의 삶 자체도 호흡의 한 순간이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받았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 소식

불일문화원 '목요 생활강좌' 개설

법련사 부설 불일문화원(원장 신영훈)은 오는 5월 2일부터 매주 목(오후 2~5시) 생활강좌를 개설한다.

민족문화의 전통을 재인식시키고 생활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심미안을 개발시킬 수 있는 이번 생활강좌는 △한국의 살림집(신영훈)△생활법률-유서를 씁시다(차명희) △새로 짓고싶은 내집(김종성) △살림살이(라선화) △차생활(류여진) △생활과학(서희건) △쌍이문과 한국문화(김병모) 등 다양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02)733-5591

불교방송 불화반 전시회

불교방송 불교문화센터 불화반(지도강사 박정자)의 불화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박정자씨의 불화작품과 불화반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로 그린 관음보살 연꽃 용 등의 불화가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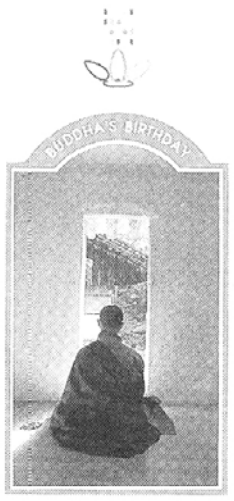
서산대사추모 글짓기대회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둔사(주지 천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사내 서산대사 유물관 앞에서 서산대사 탄신 476주년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일반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글짓기대회 종목은 시·시조·산문 3종목. (0634)34-5502~3.

봉축 영문안내서 배포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회장 월주)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한국방문객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안내서 1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봉축위가 제작한 안내서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오신날 의의, 한국불교 현황 등을 담고 있으며 전국의 관광사찰, 공항, 관광안내센터, 여행사에 보급한다.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영문안내서.

전정우 서예·전각전

"깨달음의 법어를 작품으로"

18~28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



◇전정우씨.

중진 불자서예가 심은(沁隱) 전정우씨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 2·3층 전관에서 두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그동안 발표한 서예작품 260여점과 전각 100여점을 모은 '심은 전정우 서집' 출간기념도 겸하는 이번 서예전에서 전씨는 한(漢) 이전의 갑골, 종정(鍾鼎), 백서(帛書), 죽·목간 등의 독특한 서체를 응용한 작품 2백여점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에는 불교 소재작품들이 상당수 선보이고 있다. 전씨는 특히 만해 만공 경봉 효봉 성철스님 등 역대 선사들의 법어를 서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선사들의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 정신에 귀의하여 그들의 웅혼무비한 정신을 서예로 전각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신라비를 연구 제작한 영가 현각대사의 '증도가'(13×2m)와 광개토대왕비를 연구·제작한 '부모은중경(7×2m)은 대 역작으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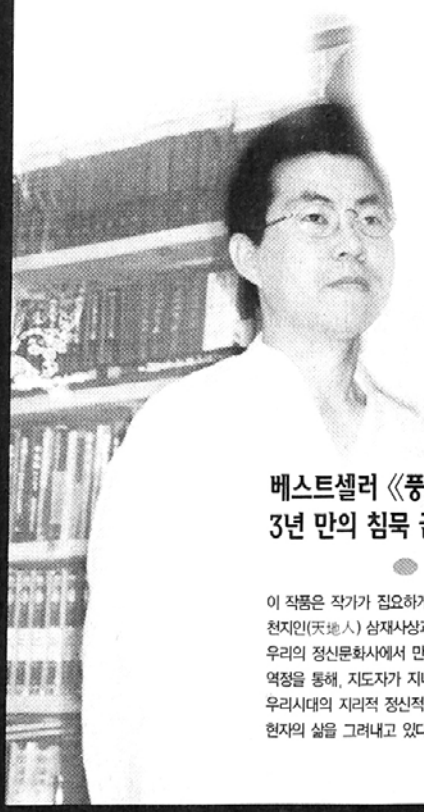
여초선생에게서 서예를, 구당선생에게서 전각을 사사한 전정우씨는 대한민국 서예대전 서예부문 대상 등 각종 서예관련 상을 다수 수상한바 있다.

여초선생은 전씨의 작품에 대해 "서법예술의 창작은 眞·美·法·理의 추구에 충실해야 하는데 심은은 이를 중시하고 독특한 개성과 풍격을 빚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숙〉



◇전정우作 '禪'.

해동국을 거대한 만다라로 장엄해 보라!



전국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김 종 록 장 편 소 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불국토의 거대한 법당으로 비보하려 했던
옥룡자 도선국사의 역정을 더듬는다.

베스트셀러 《풍수》의 작가 김종록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힘찬 소설!

이 작품은 작가가 집요하게 탐구해가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우리의 정신문화사에서 만난 거인 도선국사의
역정을 통해, 지도자가 지녀야할 미덕과
우리시대의 지리적 정신적 통합의 논리와
현자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으나 그 최락의 끝에 선 신라왕실,
그 난세(亂世)에 삼한강토를 주유하며, 이 땅의 청사를 빛낼
지도자의 출현을 예언한 선각자 도선국사!
유불선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되 서로
어그러짐이나 축남이 없었던 대인(大人)이었고,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는
대당 유학승이 행세하던 시절 원효성사가 그러했듯
이 땅에서 득도하여 비유비불비선의 해동 지성의 길을 걸었다.
그가 살았던 신라 말이나 오늘 우리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여
천년 전의 그의 말씀은 오늘 그대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



신국판/328쪽/6 800원

삼중스님 에세이

걸망에서 배운 인생

어머니의 애잔한 눈길은 아직 가슴에 있고,
속세의 어리석음도 미처 다 허물지 않았거늘……
걸망 하나 짊어진 채 집 떠난 지 40년 세월!



신국판/320면/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부천 석왕사 현재의 모습(전경).

천막법당서 신행요람 '우뚝'

석왕사 20년



◇주지 영담스님

바른불교, 실천불교를 위해 신도시 한가운데 사찰을 창건한 부천 보운산 석왕사(주지 영담)가 지난 15일로 천막법회를 시작한지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76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에서 천막법회를 시작으로 대중포교활동을 벌여온 석왕사는 현재 4만여명의 신도들이 전법과 신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석왕사가 다른 도심 사찰과는 달리 불교의 대중화에 급성장한 것은 사회교육활동과 신행활동 등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석왕사는 룸비니 어린이 집, 룸비니 유치원, 특수아동 조기교실, 노인대학, 마야야간학교, 외국인 노동자의 집 등 다양한 대중교육의 장이 마련돼 있다.

특히 룸비니 특수아동 조기교실은 정신지체아동, 자폐아동 등 정박아동들을 조기에 발견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활동을 펼쳐 교계에서는 선구자적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석왕사가 어린이 시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 목소리가 절에 떠들썩할 때 불교가 젊은 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영담스님의 지론에 따른 것.

또 석왕사는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을 펴는 것과 함께 대중불교를 위한 각종 법회와 신행단체를 통한 신행활동도 어느 사찰 못지 않게 왕성하다.

이처럼 도심속에서 대중과 함께 해온 석왕사가 수도권의 대중사찰로써 굳게 자리를 잡은 것은 이타적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끊없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명이 천막에 모여 법회를 보기 시작한 석왕사가 20주년을 맞아 천명이상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볼 수 있는 대형불교회관인 수행원 건립을 발원하고 나섰다.

김중근 기자

신도 4만여명…사회교육장 '자리매김'

어린이·노동자의 집 노인대학등 운영

종단마다 교양대 설립 '붐'

태고·총지종 불교대 이달 개설

법륜·관음·법화종도 내년 추진

태고종 봉원불교교양대학과 총지종 총지불교대학이 이달내 개설되고 올해 설립방침인 법륜종을 비롯하여 관음종과 대한법화종이 내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을 서두르는등 각 종단에 불교교양대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신도들의 교리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각 종단의 교양대학은 종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불교교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불교대중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봉원불교교양대학(학장 대운)은 오는 18일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50여명의 제1기 입학생들의 개강식을 갖고 공식출범한다.

3개월과정의 봉원불교교양대학은 불교개론 불교의식이론 경전강독 초급일어등의 과목이 개설되며 교수진은 운곡스님(태고종 포교원장) 권기종교수(동국대) 만춘스님(동방대 교수)등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다.

또 삼천불전 지하 3층에 강의동이 마련되는 오는 9월에는 불화 범패 다도 꽃꽂이 사회봉사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문화강좌위주의 신도교양대학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대학장 대운스님은 "종단의 일반신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이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불교문화예술대학으로 육성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총지종도 종도들의 밀교수행증심에서 불교교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총지불교대학(학장 효강)의 개강식을 오는 23일 통리원에서 갖는다.

총지불교대학은 교화스승반과 신도반으로 나눠 1기 60명을 모집하며 스승반은 월 1회, 신도반은 매주 1회씩 교육할 예정이다.

40대 위주의 젊은 강사진을 영입하여 현실에서 현현될 수 있는 불교이론교육에 매진할 방침이라는 총지불교대학은 오는 20일까지 통리원 법장원건물 2층에 시청각강의실등 최신시설의 강의실을 마련하고 불교학개론과 밀교학을 중점으로 강의할 것이라고.

특히 97년도부터는 2년제의 학제로 개편하여 수료후 법사자격을 품수하고 입학생도 종단차원에서 벗어나 일반인들도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관련 학장 효강정사는 "부처님의 근본교리를 통해 불교근본정신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신행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지불교대학의 근본교육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관음종과 대한법화종 한국법륜종도 불교교양대학 설립을 추진하는등 각 종단들도 신도와 승려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일고 있다. 이들 군소종단들은 강원의 부재로 인해 교양대학에서 신도교육과 함께 승려교육도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륜종은 올해내로 교양대학을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해 내부 추진작업중이며 관음종도 올해를 승려교육의 기본방침 설정의 해와 신도조직 활성화의 해로 정하고 승려교육과 신도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불교교양대학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대한법화종은 올해 불교교양대학 설립계획을 강사선임과 예산문제로 내년초 개강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월드컵유치기원 10만관등법회

태고종, 5월29일 한강시민공원서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국민의 염원인 월드컵 한국유치를 기원하고 국민정서를 결집시키는 2002년 월드컵 유치 성공기원 10만 관등 영산대법회를 5월 29일 오전 11시 한강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거행한다.

비행선 연막쇼와 범패시연 월드컵유치 서명운동을 식전행사로 막을 여는 이날 대법회는 혜초총무원장의 결의를 다지는 대회사, 보성 종정스님의 법어, 대한축구협회 정몽준회장의 월드컵유치 기원문 낭독과 불자가수 김흥국씨의 월드컵의 노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2부와 3부에서는 영산재 시연과 북춤공연이 이어지며 4부에서는 연예인 축하공연과 월드컵유치기념 스포츠 파노라마, 조명쇼 불꽃쇼를 펼칠 계획이다.

이와관련 행사를 준비중인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스님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지도록하여 온 국민의 염원인 월드컵의 한국유치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2천만 불자의 기원을 축제형식으로 구성하여 국민정서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고종의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는 민간단체의 행사로는 최초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btn BBS등 교계방송사와 여성채널인 G-TV가 생중계할 계획이다.

방송가 소식

이수성 국무총리 출연



◇이수성 총리



◇해성스님

이수성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출연,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총리는 "'거룩한 만남'은 뛰어난 방송의 본보기로서 앞으로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을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거룩한 만남'의 진행을 맡은 해성스님(연화복지학원 원장)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어려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성스님은 지난 91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법회, 지체장애인을 위한 야외법회등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탤런트 주용만씨 진행

탤런트 주용만씨가 지난 10일부터 불교TV 간판프로 '퀴즈특급 이뭐꼬'의 진행을 맡게 됐다. 주용만씨는 그동안 MBC TV 종합병원등에 출연해 왔으며 그동안 진행해 온 조선아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

BBS '불교설화' 발매

불교방송은 '불교설화'를 입체 낭독드라마로 제작, 발매하고 있다. 이 설화테잎은 1집과 2집으로 구성됐으며 고창 선운사, 삼각산 삼성암, 진주 미타사, 승주 선암사, 강화 전등사등 13곳의 설화가 담겨 있다.

BBS개국 6주년·초파일 특집 다양

28일 지구촌 어린이돕기 남산 걸기대회

5월1일 관음사 석가탑형 '대탑' 기공식

5월12일 안산 19일 부천 시민 공개방송

불교방송이 개국 6주년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걷기대회, 공개방송등 불자들과 함께하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먼저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와 함께하는 빈곤퇴치를 위한 '사랑의 걷기대회'가 오는 28일 남산에서 개최된다. 남산순환도로(국립극장~백범광장) 4km 구간에서 열리는 이번 걷기대회에는 유니세프 불교인 클럽과 지구촌 클럽등 6천여명이 참석하게 되며 박정운, 엄정화, 패닉등 유명가수들의 참여속에 지구촌 어린이 돕기 사랑의 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이 대회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북한어린이 및 동남아 불교국가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질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에는 불교방송 개국 6주년을 맞아 서울 남현동 관음사에서 대탑 기공식을 갖는다. 불교방송설립 초기부터 계획된 개국기념 대탑은 석가탑 모양의 9층탑으로 내년 7주년 기념때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이 대탑에는 불교타임캡슐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특별공개방송도 마련했다. 오는 5월 12일에는 경기도 안산 양궁장에서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공개방송을, 오는 19일에는 부천 레포츠 공원에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초파일 맞이 특집공개방송을 진행하게 되며 같은 날 종묘공원에서도 공개방송 '온누리에 자비를'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4일에는 서울랜드 특설무대에서 특집 공개방송을 펼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부처님 오신날 특집 '관응노장 구화산 순례기'를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오는 5월 22일과 23일 방송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설치비 50%쿠폰' 배포

사찰·SO연계추진…케이블가입자 확보도

불교TV가 불교계 케이블TV 가입자 확대를 위한 케이블TV 설치비 50% 할인쿠폰을 제작 배포한다. 불교TV는 오는 97년 지역방송국(SO) 전 채널의 의무 송출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SO가 직접 케이블 채널 편성권을 행사하는데 대비, 이같은 쿠폰 제도를 마련하게 된것.

이를 위해 불교TV는 지난 1월 부터 3월까지 전국의 53개 SO를 직접 방문하고 권역별로 책임자를 초청하여 불교계 가입자 확대 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앞으로 각 사암연합회와 SO의 연계 주선 및 지원 추진을 통해 불자 가입자를 확대 할 계획이다.

완전경쟁의 방송시장 구조에서 스스로의 시청자와 경쟁력있는 매체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널은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방송현실이다.

케이블TV 또한 각 채널간의 경쟁뿐 아니라 이미 종교채널 3사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청율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할인쿠폰제도는 각 지역 사찰과 SO와의 연계를 통해 불교TV가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각 종교채널의 시청율은 그 종교의 교세 반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향후 각 종교채널 사이에 시청율 결과에 따른 자존심 싸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할인쿠폰 배포와 더불어 각사찰과 불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케이블TV 가입이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이 할인 쿠폰을 사용할 경우 아파트는 기존의 6만원에서 3만원으로, 단독주택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쿠폰은 불교TV주주와 사찰 및 유관단체, 일반 불교신도에까지 4월말까지 배포되며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은〉

목탁소리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20일은 16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불자라고 자랑하는 장애인들은 마땅히 설 곳이 없다. 타종교에 비해 교계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따뜻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교계가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구가 상설화,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이 장애인이라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불국정토일 것이다.

교계는 장애인의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2천만이라고 하는 불교신자 수의 놀음(?)에만 취해 안주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까지 2천만불자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은 그동안 불교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달콤한 불사에만 급급했을 뿐 장기적인 대작불사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의 불국토

교계는 무엇보다 장애인시설에서 타종교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 천마재활원을 비롯 몇몇 단체에서만 재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설립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월을 장애인의 달로 지정, 사랑의 수화제, 1일 관광, 작은사랑예술제, 무료진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79.5%) 가운데 불교신자는 4.8%를 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함께 사는 세상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사부대중 모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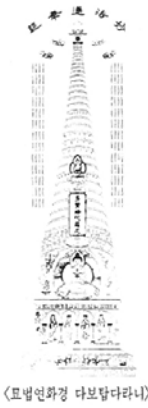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앙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과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관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관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념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념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旭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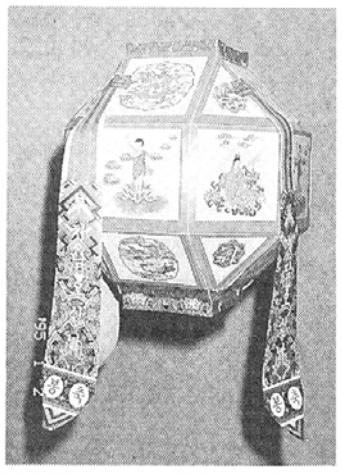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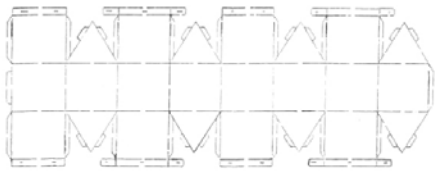
■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절에서 꽃피는 효심"

가족 인연맺기 · 무료급식 · 경로잔치 등 '풍성'

'맑고 향기롭게 모임'(회주 법정)에서는 21일 10시부터 3시까지 전국 각지에서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상징하는 연꽃스티커와 자연을 사랑하자는 내용의 전단, 우리 땅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꽃씨를 무료로 배포한다. 또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수거작업도 벌인다. 캠페인 장소는 서울 관악산, 부산 금정산, 대전 엑스포공원, 춘천 삼악산, 전주 모악산, 제주 공항터미널 등이다.

자생꽃씨 무료배포
'맑고 향기롭게' 모임

"나도 한때 쌀 한가마니 거뜬히 짊어지고 10여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달리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나처럼 주름투성이 늙은이가 돼요."

애써 눈물을 감추며 하루가 모르게 무뎌지는 몸을 가누며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서울 길동에 마련한 무료급식소 '관음의 집'(회장 안정수)을 찾는 정봉수 할아버지(91).

이처럼 최근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돼 공원을 배회하고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경노잔치,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들을 봉양하는 효행이 일년내내 잇따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강원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지홍)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 관내 무의탁독거노인 가운데 3월 생신을 맞은 황봉이할머니(72)등 8명을 초청, 푸짐한 생신상을 마련했다. 독거노인들의 쓸쓸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 즐거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날 생신잔치에서는 신흥사 거사림회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축하드립니다'라고 큰절을 올리고 아들의 인연을 맺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노인들은 복지관내 주부노래교실회원들의 축하공연으로 오랫만에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한평생의 시름마져 날려보내는 듯 얼굴 깊게 패인 주름살을 펴며 환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청주 월리사(주지 원명)도 지난달 24일 청주예술문화회관에서 지역내 노인 1천5백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마련했다. 이날 사물놀이패의 자즌가락의 멋드러진 풍악이 펼쳐지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흥에 이기지 못허 어깨를 들썩이면서 "모처럼 귀에 익은 풍물가락을 들으니 절로 흥이 난다"며 어린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금년으로 네번째 경로잔치 한마당을 개최한 월리사는 이제는 효행실천의 도량으로 주위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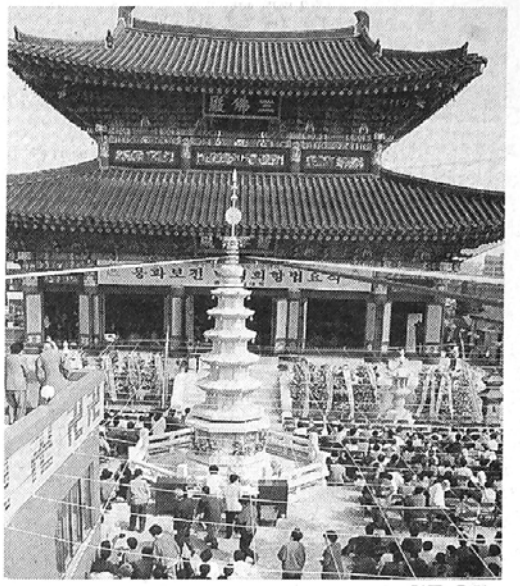
이밖에도 부산 대각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불련 자비의 집, 불교복지관 등 사찰과 신행단체에서는 무의탁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가정의 달 5월과 백중(음 7월15일)에 다양한 경로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교계는 노인들을 봉양하는 효행활동이 일년내내 계속되고 있으며 사찰은 효의 근본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관음의 집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청주 용화사 용화보전 중창 청주 용화사(주지 월탄)가 3년불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용화보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낙성식은 월산(불국사 조실), 설정(조계종 종회의장)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용화보전은 무심천에서 발굴된 보물 제965호 7존 미륵석불을 모신 법당으로 삼천불을 함께 봉안했다.

ASEM 경주유치 '움직임'

경북도 신청서 제출…5월초 결정 예정

석굴암·불국사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에서 2천년 제3차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개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ASEM 준비위원회와 정부측에 ASEM 경주개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유치신청서에서 경주는 세계문화유산 등 찬란한 우리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또한 풍부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라며 경주개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불국사를 비롯한 지역 불교계도 ASEM 경주개최는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재실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현해)는 지난 10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불국사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재실시해야한다고 결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15일 실시한 불국사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교구선관위(위원장 설조) 구성과 선거인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하고 교구선관위를 재구성, 선거를 다시 실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영담)도 회의를 갖고 봉은사문화회관관련 감사국보고를 받은후 재정분과위원장과 감사국에 전권을 일임해 재감사토록 결의했다.

중앙신도회 창립 초파일 이전 난망

초파일 이전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8일 연석회의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중앙신도회를 창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나 중앙신도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총무원과 준비위원회가 다시 논의하여 창립일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대해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초파일 이전 창립을 준비해 왔으나 임원진 영입이 여의치 않았다"며 "참신성과 신심있는 불자를 회장으로 영입한다는 기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봉축등 선물하기 전국 전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 연등축제·점등식등 행사일정 확정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웃에게 봉축등 선물하기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지난 9일 전국봉축위 회의를 갖고 봉축분위기 확산과 포교를 위해 봉축등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봉축행사일정을 확정했다.

전국 14개 봉축위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봉축위는 소외된 이웃, 친지와 친구, 연인, 고마운분들에게 등을 선물하는 문화를 전 국민적 풍습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봉축위는 또한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이란 슬로건을 정하고 △컵 등을 만들어 선물하기 △자동차용 교마등 선물하기 △사찰 및 단체별로 병원이나 복지시설방문 연등공동제작 및 선물하기 등의 행사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봉축위는 5월 한달을 봉축의 달로 정하고 봉축행사 이미지 통일을 위해 봉축위가 개발한 휘장,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봉축행사는 다음과 같다. 〈문화행사 안내 13면〉

△연등축제(5.19(일)동대문-조계사) △시청앞 점등식(5.14 시청앞) △원각사지 탑돌이(5.22 탑골공원) △불교웅변대회(5.12 조계사) △봉축심포지움(5.16 조계사) △학술세미나(5.17 동국대) △청정국토 한마당(6.1~2 조계사) △전방 OP 점등식(5.2 애기봉) △헌혈캠페인(5.19, 5.24 동대문운동장 조계사) △탑골공양(5.14 탑골공원) △염주달아주기(5.20~22 봉은사앞 사거리) △노인 재소자위문(5.7~8 청송감호소) △외국인잔치(5.12 조계사)

정암사 만항지구개발 '어불성설'

월정사 "적멸보궁 존립 위태롭다"

월정사(주지 현해)는 지난 10일 산중다원에서 '함백산 정암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암사소유지 만항지구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월정사 총무 원행스님은 "만항지구는 정암사가 위치한 함백산 정상을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산림파괴는 물론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된 10대성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만항지구와 함께 검토되고있는 고토일지구또는 지장산지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만항지구로 개발이 확정된다면 2천만불자 반대서명을 전개하겠다"며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지장보살전 점안

대한불교 조계종 영천 충효사(주지 석혜공)는 지난 10일 대구·부산·포항 등지에서 온 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보살전 점안식을 봉행했다.

바른 승가상 위해 지계 '절실'

새불교전국승가회 춘계 수련·세미나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상임의장 진관)가 개혁작업을 평가하고 향후 승가운동을 전망하기위한 춘계수련 및 세미나를 지난 8~9일 양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개최했다.

'21세기 승가가 나아갈 방향과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 혜정스님(전 법주사주지)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수도체제를 확고하게 정립해 인재양성에 앞장서야한다"며 "바른 승가상을 세우기위해 계율은 꼭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관스님(새불교승가회 대변인)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승가상'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역사속에서 모든 스님들의 모습이 다양했고 새로운 승가상을 보여주었다"며 "현실에 충실하는 승가의 모습이 새로운 승가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김경호실장(불교정보정략연구실)은 사회, 불교계 정세분석에서 "인구증가율 1%, 1만불소득시대, 산업의 고도화, 여성의 역할증대 등 사회변화에 따른 불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새불교승가회는 수행자가 종단내부에서 인정받고 포교, 수행에 전념하기위해 지난해 12월 창립, 1백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주사=이준엽 기자

자신정화 계율엄수 이익중생 "개혁정신 되살리자"

4·10 전국승가대회 2주년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뜻을 되새기는 4·10 전국 승려대회 2주년 기념식을 지난 10일 불교회관에서 봉행했다.

당시 승려대회를 이끌었던 개혁회의 원로스님들을 비롯 소임을 맡았던 스님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혜암스님(원로회의 의장)은 법어를 통해 "우리는 출가한 불자이니 과거 몽중사(夢中事)를 다시 범하지 말고 보다 더 발전하여 자주화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며 △자신의 정화 △계율엄수 △이익중생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월주스님은 '종단개혁 멈출 수는 없습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 종단내적으로 근대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승풍진작을 통해 청정한 승가상을 구현함은 물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봉축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마음 父子는 둘이 아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거기에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자기 스스로 돌아갈 생각을 않는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고 그러는 부자상봉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와 자는 본래 둘이 아니지만 현실의 자만을 나로 알고 있으니 둘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건강백세 ⑩

입술과 침

흔히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자면 입술이 튼다'라고들 말한다. 옳은 얘기이다. 입술에서 자연분비되는 지방질의 일종인 리피드(lipid)가 이불 깃에 전부 씻기게 되어 보호막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술을 평소에 습관적으로 깨물거나 자주 침을 바르는 행위도 비슷한 이유로 구순염을 앓게될 수가 있다. 건조해진 입술은 트거나 갈라지기 쉬워 세균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혀에 백태끼면 휴식 취하라는 표시
침 살균력 에이즈균 죽일만큼 강해

오랫동안 끄는 입술염증 가운데는 제3의 성병이랄 수 있는 헤피스(Herpes)균의 감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건강하고 싱싱한 입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입술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심한 바람을 쏘일 우려가 있는 특수환경에 처해야 할 경우(등산, 고온건조한 작업장 근무 등)는 당연히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 습윤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침은 자기 몸에서 분비되는 일종의 좋은 약이며 훌륭한 무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떠한 균은 다 물리칠 수 있고 더구나 무서운 AIDS균도 타액에서는 사멸된다고 한다. 더욱 독충에 물린 상처에 침을 발랐던 일 등에서 의학이 시작되지 않았던가?

혀에는 일정한 맛을 아는 부분들이 각각 다르게 분포한다. 맛은 미뢰(味蕾)라는 특수기관에 의해 감각된다. 감기나 과로 후에 백태가 끼는 것은 "몸이 피곤하여 많이 못 먹겠으니 좀 편히 쉬게 해달라"는 일종의 표시와 같다. 그런데 입안이 텁텁하여 밥맛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칫솔로 백태를 자꾸 베껴내는 때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미뢰를 파괴할 수도 있고 상처를 통해 세균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침은 최고의 소화제라고 할수 있다.

〈동의보감〉 '양생편(養生編)'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입안의 침을 꼭꼭 삼키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였다. 밤을 새워 흘여진 강력한 침은 더욱 강력한 소화력과 살균력을 가져 내장 속을 잘 소독하고 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선인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동물들이 다쳤을 때에 상처를 핥는 행위라든지, 비위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옛날 같은 너구리털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한마음의 등불 ③ 〈끝〉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가장 좋은 약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의 병이 심할 때 부처님께 드렸던 약속을 이제 기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투병생활중에 초파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꽃공양 올리는 상원이의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스님과 동참한 법우님, 합창단 보살님들까지 저희 모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법회 마지막 순서로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휠체어를 밀고 연등을 밝혀 병실을 돌때엔 그대로가 극락세계였습니다.

초파일 행사가 끝난 뒤 상원이는 조금씩 먹기 시작하더니 차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아들과 똑같은 목부분에 상처를 입고 객혈 거려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수술을 하던 도중에 죽었습니다. 정이들었던 개였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몸 받으라고 기도해주었습니다.

그일 이후 상원이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주위분들이 놀라워 했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세통씩 마셨고 삶은 달걀도 다섯알 여섯알을 너끈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음식을 만들면 상원이보다 딴 아이들부터 먹인 다음 저희 아이를 먹였는데 저렇게 식성좋은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상원이는 늘 맛있는 것 자기 대신 다른 환자들 많이 주라며 빙긋이 웃음을 지어보였습니다.

아직 1년에 한 두번 정기 검진을 받고 있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상원이는 이제 건강을 회복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원이를 위해서 병원법당에서 애써주신 혜광스님, 경찰병원 의료진, 그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오는 5월이면 4년이 됩니다. 병원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이 퇴원한 후 한달에 한번씩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 봉사를 갑니다. 법당에서 실시하는 5층 전·오경 환자들 이발봉사를 도와주고 뜻있는 분의 성금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발면 공양도 합니다. 아들의 병이 심할 때 부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병원포교에 깊은 관심과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육신의 병으로 또는 정신적 어려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절실히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 환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는 태연한 척 해도 제 스스로는 그 고통이 너무도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아이도 자살을 여러번 결심"다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가족과 이웃이 한마음이 되어 줄때 그 결실은 더욱 값지다고 봅니다.

제 아이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무하기 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비록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제 자신을 소중히 가꾸어 가는 진실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 국군묘지에 잠들어 있을 아이들의 명복을 빌며 나즈막히 속삭임을 전해봅니다.

오늘은 현충일.

대용아, 우현아, 그리고 기슴, 육재, 국병이 그동안 잘있었니.

오늘 너희들 생각하면서 경찰병원에 찾아왔어. 우리 각자 종교는 틀렸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너희들이 떠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병원에서 아침이면 만나서 주고 받던 이야기들, 차한잔 나누던 국병이 얼굴이 떠오르는구나. 잘생기고 늠름하던 대용이, 팔이 아파서 고통받던 기승이, 상원이 먹이겠다고 아픈 몸을 끌고 병실까지 찾아오던 우현이 다들 잘들 지내겠지!

너희들의 못다 이룬 효도, 사랑, 우정, 고이 간직하였다가 좋은 인연되어 다시 만나자꾸나. 너희들이 아껴주던 상원이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들의 못다 핀 꽃, 우리 상원이 훌륭하게 키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마. 아줌마가 힘들때 너희들이 큰 힘이 되어 준단다.

그리운 얼굴들…

이세상 다시 오는 날 고운 몸 받아 어여쁘게 어여쁘게 사시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청 정 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㉛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tenth loser; tell us the eleven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10)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한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places in supremacy a woman given to drink and squandering, or a man of the same kind, -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11)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의 실권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eleventh loser; tell us the twelf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12)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㉛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번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두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has little property, (but) great craving, is born in a Khattiya family and wishes for the kingdom in this world, - 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113)'

"크샤트리아(武士)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 supremacy (n) 지배권
* squander (v) 탕진하다
* insight 통찰력, 안식(眼識)
* crave (v) 열망하다
* property (n) 재산 (여기서는 의역해 '권세')
* little A, great B (대칭구조) A는 작은데, B는 커서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프래니 ㉮

J.D 샐린저 作

토요일이 되면서 오버코트가 그리워지는 날씨로 되돌아갔다. 10시 25분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들은 플랫폼과 대합실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선 채로 이번 주말의 예일대학의 풋볼시합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적갈색 목도리를 두른 레인 코우텔은 지붕도 없는 추운 플랫폼에 나가 있던 몇 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들로부터 떨어져 서 있었다. 그는 불쑥 레인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그때 열차가 도착했다.

"레인!"

플랫폼 맞은편 북쪽 끝에 정차한 열차의 맨 앞칸에서 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던 프래니는 무척 기쁘게 그를 맞았다. 뛰어난 미모를 지닌 그녀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남의 관심을 끌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 이젠 진저리가 나"

롭, 그녀는 연극에 대한 애정과 싱그의 작품에 대한 비평에 얼마나 열을 올리던지 서너시간을 거푼이 혼자서 이야기 했었다.

혼잡스런 역을 벗어난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대학 내에서는 꽤 인정받은 레스토랑인 '시클리'를 향했다. '시클리'는 여전히 예일이나 하바드 대학생들로 들끓었다. 그들은 비교적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어쨌든 말이지, 이번 주말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쓴 프로베르 논문을 보여주고 싶어" 레인은 서둘러 이야기를 꺼냈다.

레인은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플랫폼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자신의 수다를 제외하곤 그녀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레인은 고개를 돌려 웨이터를 불렀다.



그림 · 심민섭

"나는 샌드위치면 돼. 그리고 우유 한 잔하고."

"써버면 애들 장난 같은 주말이 될 것 같은데"라고 레인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내뱉았다. 그리고 이내 생각을 가다듬고 화제를 돌렸다.

"연극은 어땠어."

레인이 다정스럽게 말했다.

"연극이 고민거리였었어. 나 자신이 추잡한 자아(自我)에 빠진 미치광이처럼 생각되기 시작했거든."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이 말했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어리석은 취미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에고(ego) 투성이었지. 연극에 출연할 때는 언제나 나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싫어졌어."

"관찰은 배역을 맡았다고 좋아했던 모습을 내게 보여 줬던 것도 바로 너였잖아."

프래니는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어. 이젠 됐어, 레인. 나는 지금 내 기분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보고 싶어한다든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일들에 온통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진저리가 나.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하고 프래니는 말했다.

필자약력

· 1919년 뉴욕 출생.
· 51년 〈호밀밭의 파수꾼〉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가 됨.
· 〈프래니〉는 55년에 발표한 단편.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 한정보급!

팔만대장경을 아십니까 ?

대장경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의 총칭으로 경장, 율장, 논장의 삼장三藏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장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장이란 불교도의 생활규범이며, 논장은 경과 율에 대한 조사들의 논문입니다.

대장경은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사업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먼저 간행된 구판舊版 대장경은 1011년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려는 발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1087년까지 무려 칠십육년에 걸쳐 아루어졌는데, 중국의 장경에 견주어 그 무렵으로서는 내용이 가장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八公山 부인사符仁寺에 봉안된 이 구판 대장경은 고종 19년인 1232년에 몽고군의 방화로 그만 불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오 년 뒤인 1236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대장경 간행 불사를 추진하여 1251년에 그 완성을 보게되니, 십육 년에 걸쳐 이 큰 불사의 결실이 바로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입니다.
완성된 고려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모셨으나 왜구의 노략질이 심해져서 서울의 지천사支天寺에 옮겼다가 그 뒤 조선시대 태조임금 때인 1398년에 해인사로 다시 옮겨 모신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을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까닭은 대장경의 장경 판수가 팔만에 장에 이르는 데에서 비롯되기도 했을 터이지만, 원판으로는 불교에서 아주 많은 것을 가르킬 때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용례대로, 가없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 법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진품 복제경판을 보급합니다.

팔만대장경 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작업, 영구보존사업, 대장경 홍보사업은 세계인의 관심과 소명이 모여져야 가능합니다.





■ 가로 69.5cm, 세로 23.9cm로 원본과 같은 크기 입니다.
품위있는 구양순체에 원판각인상태 그대로의 A형과 금박을 입힌 B형 두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경판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반야심경원판복각본의 탁본 1매와 보증서를 드립니다.

살아숨쉬는 역사를 소장하십시오

세계문화재 팔만대장경을 소장하시는 분은 품위있고 편안한 만족과 함께 21세기대장경을 만들어가는 차별화된 문화인의 긍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않는 마음의 뿌대로 삼으십시오

팔만대장경에는 무력앞에서도 꺾이지않은 조상의 고귀한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불굴의 호국정신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800년전 선조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그 정신이 한자 한자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진품복제경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 반야심경
크기 : 원판의 크기와 동일 (가로 69.5cm, 세로 23.9cm)
재질 : EPOXY
서체 : 구양순체
가격 : ₩200,000
제작 : 고려대장경 연구소
구입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